

전략연구 2017-49

충남지역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 연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jaewan@kongju.ac.kr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업진학, 자립준비기간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법정 연령을 초과한 시점부터 퇴소하여야 한다.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의 지원이 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에서 일시 또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의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퇴소 준비를 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본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시설보호 아동이 퇴소한 이후의 삶을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퇴소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사회에 정착·통합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퇴소아동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기존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퇴소 아동의 경제적 지원 현황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파악하고 아동의 상황별 심층 분석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의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심층 면접을 통한 상황분석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현재의 피상적인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보다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퇴소 아동의 진학, 취업, 창업 등과 연계된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복지모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대상자 욕구분석, 대안제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선행연구, 각종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저소득 계층이며 빈곤층인 시설아동에 대한 빈곤이론을 고찰하여 이론적 접근 전략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4명(10년 이상 근무자), 시설입소아동 5명, 시설퇴소아동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자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종사자 : 시설장, 직원 등>

- 아동의 입소사유 및 특성, 퇴소아동 실태
- 아동의 시설생활적응 및 어려운 점
- 퇴소전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효과성

- 퇴소전 자립생활에 대한 아동의 인식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자원 연계 현황
- 퇴소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 퇴소이후 주거와 취업의 만족도 및 어려운 점
- 퇴소 아동과의 교류정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여부 및 어려운 점
-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사항과 필요한 지원방안

<입소아동>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 시설 입소경위 : 입소사유(상황), 입소시 연령 및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 유무 등
- 시설 입소후 생활만족도 : 시설거주시 어려운 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어려움/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 및 학업성취도/ 경제 활동, 용돈수준과 학교생활비용과 만족도 등
-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 : 자립에 대한 인식, 시설거주시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참여정도와 만족도. 고등학교에서 취업관련 교육의 내용과 만족도/ 자격증 취득여부 및 자격증 취득 희망분야 등/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 연계 및 만족도/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의 욕구/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 또는 꿈 등

<퇴소아동>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퇴소기간
- 시설입소경위 : 입소사유(상황), 입소시 연령,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유무
- 퇴소이후 생활실태 : 주거형태 및 상황과 만족도, 어려운점/ 취업유형, 취업기간, 취업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대학진학(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 소득수준, 국가로부터 지원여부 및 내용/ 용돈수준/ 아르바이트 경험 및 수입 정도/ 퇴소전 시설과의 연락 및 교류정도/ 친권자 및 가족 등과 교류정도 등/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퇴소이후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 자립실태에 관한 사항 : 자립에 대한 인식/ 진학후, 취업후 자립생활에 어려운 점/ 취업, 진학 등에 대한 자발적 준비 또는 노력정도/ 경제적, 정서적 등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퇴소전 자립지원프로그램 도움정도/ 현재 취득한 자격증 종류 및 취득준비중인 자격증 종류/ 자립시 필요사항/ 희망하는 직업 및 꿈 등

시설종사자의 인터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2018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으며, 시설입소아동 및 퇴소아동에 대한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수행하였다.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전화로 보완하고 재방문하였다.

4.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자립지원실태

1) 아동복지시설 현황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16년도 기준으로 10,967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0개소, 공동생활가정 510개소, 그리고 가정위탁가정수 10,197가정, 자립지원시설 12개소이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아동양육시설 5,605명, 공동생활가정 1,514명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230명으로 전체 7,119명이다.

〈표 1〉 아동복지시설현황

구분	합계			아동양육시설2)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지원시설	
	시설수	아동수	종사자수1)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위탁가정수	아동수	개소수	인원
2014년	11,818	30,656	6,166	265	13,683	5,156	476	2,588	1,010	11,077	14,385	12	252
2015년	11,449	29,366	6,687	263	13,002	5,507	480	2,636	1,180	10,706	13,728	12	243
2016년	10,967	28,234	7,119	260	12,580	5,605	510	2,758	1,514	10,197	12,896	12	230

출처: 보건복지부, 「2015~2017 아동복지시설 현황·공동생활가정 현황·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주: 1)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 합계(가정위탁 제외) 2) 개인양육시설 포함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전체 3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5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0개소이다. 시·군 중 천안이 12개소로 가장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은 아동복지시설이 없다.

한편 충남의 지역아동 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현재 224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에 총 6,20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479명, 초등학교 저학년은 2,436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2,192명, 중학생은 907명, 고등학생은 185명 등이다. 기타는 대안학교 이용학생으로 8명이다. 전국현황은 총 시설 수 4,059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0만 8천 9백 36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입·퇴소 현황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시설(2016년도/ 아동양육시설)은 14개소로 전체 입소인원은 636명으로 남자 343명, 여자 293명이다. 입소아동 중 미취학 아동은 127명이며 초등학교 174명, 중학교 139명, 고등학교 142명, 대학교 49명 그리고 기타 5명이다.

〈표 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충남)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 자수	정 원	입 소 인 원			취 학 아 동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 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미만	3~6세 미만					
계	27	515	1,796	1,240	679	561	1,240	80	146	354	283	288	81	8
2015년	13	227	957	604	336	268	604	31	68	180	144	146	32	3
2016년	14	288	839	636	343	293	636	49	78	174	139	142	49	5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7)

한편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전국적으로 2015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5,749명이며, 퇴소한 아동은 5,988명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학대 2,340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부) 959명, 비행가출부랑아 735명, 유기 472명, 가정해체 438명, 빈곤실직 43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소는 원가정복귀 2,270명, 타시설로 전원 1,643명, 취업자립 1,252명, 가정위탁 565명, 입양 215명이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현황(2015년)을 보면 입소아동 184명이며 퇴소아동은 166명이다. 입소이유는 학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빈곤실직 29명, 유기 18명, 가정해체 16명 순이다. 퇴소는 원가정복귀 65명, 취업자립 62명, 타시설로 전원 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시도별 입퇴소 현황(2015. 12. 31 기준)

구 분	입 소									퇴 소							
	계	유 기	미혼모(부)(혼외자포함)	미 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 실직	가정 해체	학대	전 입	계	원가정 복귀(연고자인도등)	취업 자립	가정 위탁	입 양	전 원		사 망 탈원
															아 동 시 설	기 타 시 설	
계	5,749	472	959	9	735	432	438	2,340	364	5,988	2,270	1,252	565	213	1,384	259	43
충남	184	18	3	-	1	29	16	101	16	166	65	62	5	-	27	6	1
서울	1,901	356	715	8	284	107	31	316	84	1,929	493	211	535	164	450	56	20
부산	187	11	4	-	1	16	14	117	24	277	68	134	-	3	47	21	4
대구	259	6	21	-	33	22	17	142	18	262	123	98	-	3	29	9	-
인천	252	1	5	-	-	15	48	176	7	238	102	52	5	-	66	13	-
광주	237	2	39	-	1	55	18	91	31	223	71	47	4	3	73	24	1
대전	277	3	4	-	196	11	6	53	4	275	219	33	1	-	13	8	1
울산	81	-	1	-	-	6	9	64	1	83	57	12	-	-	9	5	-
세종	8	-	-	-	-	5	1	-	2	13	8	2	-	-	3	-	-
경기	903	55	35	-	64	46	140	507	56	973	375	187	6	21	350	32	2
강원	209	1	19	-	2	26	21	123	17	210	88	26	7	3	74	12	-
충북	173	3	20	-	62	17	21	40	10	213	87	60	-	16	28	15	7
전북	436	6	16	1	83	12	19	281	18	422	216	68	-	-	115	19	4
전남	289	2	54	-	6	40	31	116	40	302	134	89	1	2	58	18	-
경북	136	-	4	-	-	3	22	91	16	173	68	81	-	-	20	4	-
경남	151	6	8	-	2	20	17	84	14	164	62	76	1	-	12	10	3
제주	66	2	11	-	-	2	7	38	6	65	34	14	-	-	10	7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현재 충청남도의 퇴소아동 취업형태는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이며 취업분야는 서비스직 7명, 기능직 5명, 단순노무직, 전문직 각 3명, 판매직 2명, 농어업 1명, 기타 3명이다.

3) 자립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된다. 아동자립지원관련 사항은 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간식비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정부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립지원 관련 사업(충남)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방법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양육시설,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45명 (도비 30%/시군비 70%)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생활시설 아동 (미취학아동 제외)	601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1인당 월 지원 단가: 초등학교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간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763명 (도비30%/시군비 70%)	간식비 지원	1인당 일 2천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만15-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345명 (도비30%/시군비 70%)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중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자	62명 (도비 30%/시군비 70%)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26명 (도비 30%/시군비 70%)	참고서 구입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학원수강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35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 특성에 맞는 학원 수강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70만원이내
시설아동 독서활동비 지원	생활시설	38개소(83명) (도비 30%/시군비 70%)	시설 내 독서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1개소당 연간 60만원 이내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1개소, 6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아동자립증진지원	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1개소, 20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지원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 지원 등	도 직접 집행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생활시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350명 (도비 30%/시군비 70%)	문화생활,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미만의 아동 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과 중 위 소득 40% 소득수준아동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아동의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아동이 적립시 국가(자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매칭하여 월 4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즉,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과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규모는 2,339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부담하며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하는 것이다.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세주택지원이 있다.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만20세 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의 만료시 기존주택전세임대료 연계가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다. 지원절차는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를 통보한다.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당 5백만원 1회 지원한다.

사회적응훈련비 지원은 생활시설 아동(미취학아동 제외)에게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한다. 1인당 월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이다.

간식비지원은 생활시설아동에게 1인당 일 2천원을 제공하며,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으로 만15세-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해 1인당 연간 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또한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은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수강비지원으로 1인당 연간 7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아동 독서활동비지원으로 1개소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정서함양프로그램지원으로 문화생활 및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내 지원한다. 또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충남도)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자립증진지원으로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1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자립지원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수탁운영)이 있으며 시·도단위에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은 2012년 아동복지법 내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아동복지법제38조 자립지원, 동법 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사업단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의 설치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주거, 진로, 경제생활 등의 자립준비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주요기능은 아동자립교육 및 자립체험훈련, 자립지원과 아동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및 운영평가,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과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아동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아동자립지원사업 홍보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충청남도의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남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6천만원이다. 주요사업은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그리고 자립역량강화교육이다.

5. 충남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사례분석

1) 서비스 제공자 사례 분석

조사대상자인 시설장 및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소 사유와 입소 시 상황을 보면, 아동학대와 가정문제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였다. 이들은 무기력하고 무계획적이며 학습의욕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문제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당 수는 ADHD, 분노조절장애, 학습능력장애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퇴소 전 생활에 대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후원금이나 자립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액수에 대한 부담과 소비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지역 사회의 기업에 아동을 취업 시켜도 얼마 안가 그만두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취업을 부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아동들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었다. 주요 자격증으로는 요리관련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IT관련 자격증 등이다. 시설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원룸에서 살아보는 것을 하지만, 금산보다는 천안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퇴소 후 상황을 보면, 퇴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취업은 주로 생산직에 많이 하였다. 그리고 시설과는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퇴소 아동들은 퇴소 후에 외로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버거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고 험한 세상에서 돈 사기, 결혼 사기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상태 또한 불안정하여 이사를 자주 다닌다고 하였고, 높은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퇴소 아동이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시설장들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표 5〉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분석 종합

단계	범주	하위 범주
입 소 시	입소 사유 및 아동의 실태	학대에 의한 방임으로 시설 입소
		가정의 문제로 인한 입소
		베이비 박스의 영향-미혼부모 아동의 입소
		아동 보호의 현실적 문제 대두 - 호적, 시설 평가, 장애아 구분
	입소 아동의 특성	무기력과 무계획적인 생활
		낮은 기초 학력
		지역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아동의 시설 생활 적응	장애 있는 아동의 험난한 시설 생활
		부모 없는(연락이 안되는) 아이의 이탈 행동
		목표 없는 시설 생활
퇴 소 전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립지원금
		단계적 지원의 필요성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에 미안한 시설의 입장
		외부 프로그램에 수동적인 아동들
		자립에는 도움이 안되는 기업의 활동
		시설 아동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입장
		시골에 있는 시설의 고립성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감
	퇴소 전 아동들의 욕구 혹은 자격증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갖고 싶은 자격증
		이제는 대학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자립생활관에 대하여	시설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일정한 효과
		도의 지원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부족
		협회 차원의 지원과 아이들의 낮은 호응
퇴 소 후	퇴소 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시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아이들
		멀기만한 원가정으로의 복귀
		주로 단순 생산직에 취업
		젊은이 취향으로 취업
		기피하는 도립대학
	퇴소 후 겪는 어려움	장애있는 경우 시설 전원
		세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퇴소 후 주거와 특성	아직 덜 된 사회화
		불안정한 주거
		많은 지원 그러나 부실한 관리
	퇴소 아동과의 교류	원가정과 시설 보다는 자신의 삶 추구
		연락을 꺼리는 퇴소 아동
		본인이 필요시 방문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서운한 마음
		물질적 지원은 어느 정도 충족
		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선진지 견학의 부활
		물질적 지원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지원

2) 입소아동 사례 분석

입소아동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거주시 어려운 점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과 후원금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감이다.

둘째,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은 학교생활에서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학습 의욕도 약하였다.

셋째,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은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지급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아동도 있었다.

넷째, 친구관계는 원만했지만,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자립에 대하여 자립은 스스로 생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지만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립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필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섯째, 시설에서 운영한 다양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자립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일곱째, 고등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장래를 위해 간호조무사, 컴퓨터지원설계(CAD), 측량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아동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교육은 금전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마 선배들이 금전 관리를 잘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지 않았나 싶다. 그 다음은 취업교육, 주택 지원 등이었다.

〈표 6〉 입소아동 인터뷰 종합

구분	범주	하위 범주
시설 입소 후 생활 만족도	시설 거주 시 어려운 점	단체 생활의 불편함
		후원금의 부족
		사회적 낙인
		좁은 실내 환경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만족도	낮은 학력
		무난한 친구 관계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	부족한 용돈
		저축하는 생활
	친구관계	원만한 교우 관계
		시설의 규정으로 친구 사귀는데 아쉬움
자립 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자립이란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하는 것
		두렵고 어려운 것
		사회인이 되는 필요한 과정
	시설에 거주하면서 참여한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만족도	직접 체험해서 만족
		자립 능력 향상
		문화체험비 상승 요구
	고등학교에서 취업 수강한 취업교육 만족도	만족한 취업 프로그램과 장래 희망
		취업보다는 대학에 있는 꿈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연계 및 만족도	외부 자원에 감사
	자립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금전 교육
		취업 교육
		주택 지원

3) 퇴소아동 사례분석

퇴소아동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LH전세 주택지원 제도를 통하여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퇴소 후 정착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퇴소 상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회사 적응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현재 소득 수준은 130여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수준이다. 그리고 퇴소후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넷째, 현재는 시설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설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는 소원해 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친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의 매우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일곱째, 퇴소 후 어려운 점은 이제 시설을 나가서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시설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회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자립에 대하여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현실적인 응답을 하였다. 퇴소 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매우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홉째,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은 금전 관리,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원금, 후원금 등 갑자기 큰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고객을 응대하는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혼자서 세탁, 식사, 청소 등 집안 살림 하는 것도 힘들게 느꼈다.

열 번째,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이용하였고, 시설의 선생님, 전 직장에서 안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활용하였다.

열한 번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은 시설의 선생님과 연락하여 해결방법을 찾거나 남자 친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축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였다.

열두 번째,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열세 번째,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

열네 번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준비, 정보 획득을 하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7〉 퇴소아동 인터뷰 종합

구분	범주	하위범주
퇴 소 이 후 생활실태	주거 형태의 만족과 어려운 점	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의 만족
		부담스런 월세
		퇴소 후 시급히 요구되는 정착 지원금
	취업 혹은 대학 진학 만족과 어려운 점	대체로 만족한 퇴소 후 생활
		인간 관계의 어려움
		회사 적응의 어려움
	현재 소득 수준 및 국가의 지원 여부와 내용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
		국가의 지원은 전무
		과거 다양한 단기 노동
	퇴소 전 시설과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및 교류	시설과 지속적인 교류
		가족과는 전화 정도의 교류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소수의 친구
		무난한 친구 관계
현 재 자 립 상 태	자립이란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	금전 관리
		사회 생활
		혼자 사는 것
		경제적 어려움
	취업, 창업, 진학 등에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정보망 이용
		인맥 활용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지인의 도움 요청
		예방적 활동으로 어려움 대처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자립체험관의 도움
		늦게 깨달은 자립체험관의 효과
	현재 취득중인 자격증이나 준비 중인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철저한 준비
		주거 준비
		정보 획득
		신속한 지원

6.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연구대상자별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유형화한 자립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구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A, 입소 아동참여자는 B, 퇴소 아동참여자는 C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은 사회적 지원 활성화, 경제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즉,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지 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이다.

세째,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이다.

〈표 8〉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유형 분류

구분		서비스제공자(A)	입소아동(B)	퇴소아동(C)
사회적 지원 활성화	지지체계 강화	◎	○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경제적 지원 활성화	재정관리 교육 강화		◎	◎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	◎
자립프 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
	지역 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		◎

주 : ◎ 2개 이상, ○ 1개, × 없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과 함께 기존의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퇴소전, 퇴소이후)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현재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3가지로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다.

<표 9> 현행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신규 지원 방안

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신규)	
1.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1.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 지원방법 :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	1. 사회적 지원 활성화	- 지지체계 강화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2.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 내용 : 시설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자로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 부담.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임.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지원절차 :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 통보	2.경제적 지원 활성화	- 재정관리 교육 강화
3.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4.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지원내용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 지원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5. 아동자립증진지원 - 지원내용 :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지원 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 지원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2억지원 (도비)			3. 자립 프로그램 활성화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6. 아동발달지원계좌 - 지원내용 :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 지원방법 :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2.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 - 아동적립상황에 따라 적립금액 차이발생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 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자립역량강화교육			

사회적 지원 방안(3가지)은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첫째,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원가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후원 가능한 원가족 찾기 및 연계, 교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지와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기는 하나 원가족이 가지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시설퇴소 아동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현실감 있게 자신도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같은 시설 출신 선배나 지역 출신 선배를 멘토로 연결하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퇴소아동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쉬운 용어와 만화로 만들어 퇴소 아동에게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경제적 지원 방안(4가지)은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이다.

첫째, 재정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으로 금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절실히 깨닫는 것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경제관념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을 사후에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 후견인 제도를 두어서 금융관리를 잘 하게 도와야 한다. 금전 관리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약 50만원 수준) 지출할 경우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금융 자문인을 퇴소 전 연결하여 정보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고, 이후 50만원이상 지출 시 사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듣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셋째, 빈곤 이론에 근거해서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더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하여 채용 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착 지원금 제공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정착지원금의 지원을 퇴소 전 지급하여 퇴소 즉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 및 신속처리 강화가 필요하다.

퇴소 후에 행정처리가 되어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7가지)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이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시설 아동의 특성상 무기력과 무계획성이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현금 인센티브, 정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립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 예를 들어 먼저 퇴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의 집에서 5박 6일 정도 생활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배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자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자립 시 어려운 점과 극복 과정, 자립에 도움이 되었던 것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퇴소 아동들이 시설과 소원해 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설 아동들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장원, 식당, 카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소)과 업무 협약을 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직업을 체험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이런 데서 체험을 하면 일정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상심리사 채용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타시도 보다 앞서서 충남에서는 모든 아동 거주시설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13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은 아동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시설이 근린 지역과 떨어진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3개 시설의 아동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시설의 아동들은 도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상심리사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치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치료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장들의 인터뷰 분석을 보면, 2016년까지 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이후 폐지되었다. 이제는 시설 아동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이 인터넷, 전문가, 선배, 도서 등의 도움을 받아 스케줄을 잡고, 견학지를 접촉하고, 여행사를 선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여섯째, 퇴소 아동의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이다. 소 아동들은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해 왔다. 참여를 잘 안했다. 퇴소 이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퇴소한 아동이 시설의 프로그램에 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퇴소 아동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퇴소 아동이 재교육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다면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곱째,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의 지원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퇴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기관,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인권보장의 원리에 기초한 아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지도와 치료, 재활, 훈련 등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운영의 패러다임이 개별 아동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보호받는 아동이 시설병이라고 하는 낙인감과 집단 성장, 교육, 보호 시스템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이 중요하며, 이의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퇴소아동자립지원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목 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 대상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11
1.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11
2. 아동복지시설의 입·퇴소	14
제2절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실태	19
1. 아동복지시설 현황	19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입·퇴소 현황	22
3. 자립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24
제3절 시설퇴소 아동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4
제3장 충남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실태	39
제1절 서비스 제공자 심층면접 분석	39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	39
2.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46
3.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6
4. 인터뷰 종합	67

제2절 입소아동 심층면접 분석	71
1. 시설 입소 후 생활 만족도	71
2. 자립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75
3. 인터뷰 종합	80
제3절 퇴소아동 심층면접 분석	83
1. 퇴소 이후 생활 실태	83
2. 현재 자립 상태	89
3. 인터뷰 종합	96
 제4장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100
제1절 사회적 지원 방안	103
1. 지지체계 강화	103
2.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104
3.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05
제2절 경제적 지원 방안	107
1. 재정관리 교육 강화	107
2.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108
3.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109
4.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108
제3절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111
1.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11
2.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112
3. 지역 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113
4. 임상심리사 채용 비용 합리적 사용	114
5.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115
6.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	115
7.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116
 제5장 요약 및 결론	118
제1절 연구의 요약	118
제2절 결론 및 제언	128
 참고문헌	130

표 목 차

〈표 1-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7
〈표 2-1〉 자립지원정착금 지원현황(2015년 기준)	16
〈표 2-2〉 아동복지시설 현황	19
〈표 2-3〉 시·군 아동복지시설 현황	20
〈표 2-4〉 충남 지역아동센터 현황	21
〈표 2-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충남)	22
〈표 2-6〉 시도별 입퇴소 현황(2015. 12. 31 기준)	23
〈표 2-7〉 퇴소아동 취업형태 및 분야	24
〈표 2-8〉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사업	25
〈표 2-9〉 자립지원 관련 사업(충남)	27
〈표 2-10〉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	29
〈표 3-1〉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분석 종합	67
〈표 3-2〉 입소아동 인터뷰 종합	81
〈표 3-3〉 퇴소아동 인터뷰 종합	97
〈표 4-1〉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유형 분류	101
〈표 4-2〉 현행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신규 지원 방안	102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은 그 필요성에 비해 지원주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업 진학, 자립준비기간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법정 연령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퇴소 하여야 한다.

자립은 사전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다’는 개념으로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충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적 독립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배주미 외, 2011:70).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내 아동·청소년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청소년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강현아 외, 2009; 배주미 외, 2011: 71).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이 소극적 현금지원에서 적극적인 자립정책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이며(정익중, 2007), 특히 미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학교-직업사회 기획이행 법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등의 법령 하에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배주미 외, 2011). 대표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24개월간 거주하면서 다양한 자립생활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한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저소득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주택 건설을 통해 대안교육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유스빌드(Youth Build)가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의 지원이 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에서 일시 또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사회 투자의 일환으로 빈곤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추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산하 및 유관기관에 저소득취약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 지원단사업, 세이브터칠드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16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10,967개소에 아동은 28,234명이며, 자립지원시설은 12개소이며, 2016년 보호 종료 아동 중 27.6%가 진학, 50.5%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2017). 2017년 9월말 기준 보호종료 아동은 12,184명으로 가정위탁 1,372명, 아동양육시설 935명, 공동생활가정 119명 순이었다(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2017).

현재 보호 종료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주거지원,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대학입학금 150만원에서 실비지원까지 17시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주거, 교육, 진로, 취업,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원발굴, 연계와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시도자립지원전담 기관설치, 전담요원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7개 시도 중 9개소에만 설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개별 시도의 보호종료 등 요보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황별 실태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진학, 취업 및 창업 당사자별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투자 개념으로서 아동 복지정책의 기조변화와 현황 연구는 있으나 실태조사 및 대상자 욕구분석 등 다양한 문제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사회양극화 심화는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계층이동의 불가능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가 필요한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의 기회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근 3년간 요보호 아동 14,089명 발생,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달성, 사회문제 예방 및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RAND 연구소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1달러의 조기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AND, 2006).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도입한 아동발달계좌처럼 빈곤퇴치 전략으로써 자산형성지원제도가 갖는 의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새로운 사회기회의 창출, 심리적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참여의 촉진 등으로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김연명 외, 2007:5-6; Sherranden, 1991).

2007년 정부는 아동자립에 대한 복지투자 사업으로 ‘디딤씨앗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기준 지원 등에 정부매칭 한도액 3만원으로 적립하였고 2017년부터 4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자립교육, 자립체험훈련, 자립지원지도사 양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별 욕구나 문제 상황에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시설보호 아동이 퇴소한 이후의 삶을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시설퇴소 아동 현황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의 내재적 갈등과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욕구에 기반한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기존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퇴소 아동의 경제적 지원 현황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파악하고 아동의 상황별 심층 분석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심층 면접을 통한 상황분석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현재의 피상적인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보다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퇴소 아동의 진학, 취업, 창업 등과 연계된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복지모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대상자 욕구분석, 대안제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선행연구, 각종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저소득 계층이며 빈곤층인 시설아동에 대한 빈곤이론을 고찰하여 이론적 접근 전략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4명, 시설입소아동 5명, 시설퇴소아동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자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3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동 거주시설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였으며, 퇴소 아동 자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아동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다. 참여자들은 오직 아동 거주 시설만 근무하였으며 아동 보호와 자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참여자 중 1명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로서 아동거주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소아동은 모두 5명(여학생 4명, 남학생 1명)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현재 가족은 무연고가 2명이며 주로 가정이 해체된 부나 모 그리고 오빠가 있다. 시설에 입소할 때 연령을 보면, 갓난 아기 때인 4세 이하에서 청소년기인 13세 또는 14세에도 입소하였으며 이들의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최소 5년 8개월부터 최대 16년까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인 퇴소아동은 5명으로 여자 3명, 남자 2명이다. 이들은 21세에서 25세로 모두 20대 초중반이다. 학력은 고졸 2명 대학 재학 1명, 전문대 졸 2명이다. 이들의 가족은 무연고에서부터 다양한데,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결손 가정이며 과거 시설입소 연령은 3세부터 11세 까지 다양하고 시설 거주 기간도 최소 7년부터 최대 19년이다.

〈표 1-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시설 근무 경력				직책		
시설 종사 자	참여자1	여	67	36년 9개월				시설장		
	참여자2	남	51	28년 1개월				시설장		
	참여자3	남	63	35년 3개월				시설장		
	참여자4	남	36	10년 2개월				자립지원전담요원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가족	입소 연령	시설 거주기간	입소 경위	장래희망	
입소 아동	참여자 1	여	20	실업계 재학	모	13	6년 6개월	이혼과 빈곤	치위생사	
	참여자 2	여	20	실업계 재학	오빠	14	5년 8개월	부모 사망	사회복지사	
	참여자 3	남	19	실업계 재학	무연고	3	16년	부모 이혼	건축가	
	참여자 4	여	16	인문계 재학	무연고	2	14년 11개월	기아	공무원	
	참여자 5	여	18	실업계 재학	부	4	14년 11개월	이혼과 빈곤	물리치료사	
구분	참여자	성 별	연 령	학력	가족	입소 연령	시설 거주기간	입소 경위	장래희망	퇴소 기간
퇴소 아동	참여자 1	남	25	인문 고 졸	모	11	9년	부 사망 모 정신질환	회사원	5년 1개월
	참여자 2	여	22	인문 고 졸	조모, 부, 남동생	13	7년	부모 가출	CEO	2년 2개월
	참여자 3	여	21	대학 재학	부, 남동생	8	12년	모 가출	경호원	1년 1개월
	참여자 4	남	22	전문 대 졸	무연고	3	19년 2개월	기아	작가	1개월
	참여자 5	여	23	전문 대 졸	부, 여동생	3	19년 1개월	가정해체 및 빈곤	메이크업 아티스트	1개월

2) 심층면접조사 내용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종사자 : 시설장, 직원 등>

- 아동의 입소사유 및 특성, 퇴소아동 실태
- 아동의 시설생활적응 및 어려운 점
- 퇴소전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효과성
- 퇴소전 자립생활에 대한 아동의 인식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자원 연계 현황
- 퇴소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 퇴소이후 주거와 취업의 만족도 및 어려운 점
- 퇴소 아동과의 교류정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여부 및 어려운 점
-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사항과 필요한 지원방안

<입소아동>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령,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 시설 입소경위 : 입소사유(상황), 입소시 연령 및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 유무 등
- 시설 입소후 생활만족도 : 시설거주시 어려운 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어려움/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 및 학업성취도/ 경제활동, 용돈수준과 학교생활비용과 만족도 등
-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 : 자립에 대한 인식, 시설거주시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참여정도와 만족도, 고등학교에서 취업관련 교육의 내용과 만족도/ 자격증 취득여부 및 자격증 취득 희망분야 등/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 연계 및 만족도/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의 욕구/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 또는 꿈 등

<퇴소아동>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퇴소기간
- 시설입소경위 : 입소사유, 입소시 연령,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유무
- 퇴소이후 생활실태 : 주거형태 및 상황과 만족도, 어려운 점/ 취업유형, 취업기간, 취업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대학진학(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 소득수준, 국가로부터 지원여부 및 내용/ 용돈수준/ 아르바이트 경험 및 수입정도/ 퇴소전 시설과의 연락 및 교류정도/ 친권자 및 가족 등과 교류정도 등/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퇴소이후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 자립실태에 관한 사항 : 자립에 대한 인식/ 진학후, 취업후 자립생활에 어려운 점/ 취업, 진학 등에 대한 자발적 준비 또는 노력정도/ 경제적, 정서적 등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퇴소전 자립지원프로그램 도움정도/ 현재 취득한 자격증 종류 및 취득준비중인 자격증 종류/ 자립시 필요사항/ 희망하는 직업 및 꿈 등

3)면접조사방법

심층인터뷰조사대상자 선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은 시설에서 10년 이상 시설에 근무하거나 30년 가까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한 명은 실제로 자립 지원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전화로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으면,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전화로 보완하고 재 방문하였다. 한 명당 인터뷰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둘째, 시설입소아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다. 이들은 자립을 2-3년 후면 퇴소해야 하는 아동이고, 자립에 대하여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서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외부 연구자가 시설 아동을 만나 인터뷰 하면 거부감이 있어서 제대로 응답이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고,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면 인터뷰는 시설장이나 자립지원담당 교사에게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달 하고 시설에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후 취합하였다. 서면 인터뷰 자료를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시설에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연구에 동의하는 아동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셋째, 시설퇴소 아동의 참여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퇴소하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퇴소 아동이다. 이들은 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였으며, 스스로 자립과 사회 생활을 경험하여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외부 연구자가 퇴소 아동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면 인터뷰는 시설장이나 자립지원담당 교사에게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달 하고 시설에 방문하거나 자택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조사한 후 취합하였다. 서면 인터뷰 자료를 퇴소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시설장이나 담당 교사가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연구에 동의하는 퇴소 아동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녹음으로 하였고, 현장에서 메모를 활용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전체를 풀어 쓴 후 다시 이를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을 연구자들이 한 줄씩 읽으면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검토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과 핵심 단어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을 거쳤으며, 대상자들의 언어와 표현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한 후 추출한 문장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 확인을 받았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1) 개념과 의의

아동복지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지원 또는 입양 등의 가정보호를 줄 수 없는 경우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보호를 받는 시설이다¹⁾.

아동복지시설은 전문적인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불충분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대신하고 보호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붕괴에 따라 겪게 되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하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거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입소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과 같은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동복지시설은 인간존중과 인권보장 원리에 따라 아동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통해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록 시설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지만 가정처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셋째, 일상 생활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지도, 치료, 재활, 훈련 등의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한다.

1)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개개인에 따라 서비스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다양한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지만, 행정편의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개별 아동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설에서는 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시설의 폐쇄적인 생활공간에 행동반경이 한정되거나 심리, 정서적 위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개방적으로 교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성 높은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갖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는 전문가와 다양한 성인과의 접촉을 통해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경험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배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또한 보호받는 아동이 시설병이라고 하는 낙인감과 집단 성장, 교육, 보호 시스템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이나 잦은 이직에서 오는 욕구 불충족, 심리적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²⁾은 10가지이며, 이중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은 5가지이고, 이용시설은 3가지 그리고 지원기능을 하는 기관이 2가지이다.

생활시설에는 첫째,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법령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해당되며 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원기관의 분류는 서비스 제공 및 기능에 따른 분류임

셋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앞서 양육시설과 달리 소규모 아동을 가정환경과 비슷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용시설은 첫째, 아동상담소가 있다.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둘째, 아동전용시설로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나 가정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의 아동에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는 아동과 퇴소하여 자립을 지원받거나 자립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입·퇴소

1) 아동복지시설의 입·퇴소에 대한 법규정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의 입소는 아동복지법 제15조 1항의 4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경우에 보호조치³⁾를 하여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대상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새로운 환경(친부모, 양육자, 후견인의 생성)변화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호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고,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둘째,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퇴소와 가정복귀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소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퇴소를 미룰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이하 생략

세 번째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미만이면서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시설에서 1년 이내 입소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자립지원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하며, 둘째,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생활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셋째,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이다.

2016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의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7개 시·도 중 대부분 시도에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 400만원을 지급하고, 대구, 대전, 전북, 전남의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1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시설의 퇴소아동에게 지원되는 정착금 규모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가정위탁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표 2-1〉 자립지원정착금 지원현황(2015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부산	500	500	500
대구	300	300	300
인천	500	500	300
광주	400	400	100
대전	300	300	300
울산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경기	500	500	500
강원	100	300	300
충북	500	500	500
충남	500	500	-
전북	300	300	-
전남	300	300	-
경북	500	500	-
경남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출처: 국가권익위원회 2016년 1월 25일 의결자료

퇴소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자체별로 대학입학금과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등이 지자체별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산형성 지원체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2) 퇴소 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선행 연구에서는 자립의 개념과 자립의 하위유형 그리고 이들을 토대로 한 지원프로그램 관련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립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아동은 물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 자립이란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의미하며,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하위영역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의사결정 등 기본적인 생활기술과 자원의 이용, 직업 등 자원관리기술의 범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Cook, 1986).

한편, Maluccio 등은 자립준비의 하위영역을 구체적 기술과 무형의 응용기술 두 범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Maluccio, Krieger, and Pine, 1990). Nollan 등은 자립준비의 하위영역을 돈·주거관리, 교육적 및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 자기보호, 정신적 발달, 사회적 발달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Nollan et al,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이해연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기술의 하위영역으로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성교육·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아성장과 사회성개발의 8개 영역으로 나눠서 개괄하고 이들 변인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조사한 바 있다(이해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2007).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자립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 하위영역 범주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부합한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자아성정,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유지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접근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립지원과 심리, 사회적 접근방법에 대한 것이 주류이나 지역별 특성과 개별

육구분석을 통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진국의 자립지원정책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로 양육시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모색을 시도하였을 뿐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의 퇴소아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배주미 외, 2011).

한편, 취약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사회, 환경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노충래, 2001; 신혜령 외, 2008). 특히 이들은 직장생활유지, 지속적인 학업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은선, 2004).

최근에는 취약 아동의 자립지원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변인으로서는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지지 등이 광범위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정선옥, 2010).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개념과 자립지원의 이론적 토대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을 퇴소 아동의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접근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보다 자세한 영향 요인에 대한 기술은 3절에서 다루기로 함

제2절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실태

1. 아동복지시설현황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16년도 기준으로 10,967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0개소, 공동생활가정 510개소, 그리고 가정위탁가정수 10,197가정, 자립지원시설 12개소이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아동양육시설 5,605명, 공동생활가정 1,514명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230명으로 전체 7,119명이다.

〈표 2-2〉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분	합계			아동양육시설2)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지원시설	
	시설수	아동수	종사자수1)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위탁가정수	아동수	개소수	인원
2014년	11,818	30,656	6,166	265	13,683	5,156	476	2,588	1,010	11,077	14,385	12	252
2015년	11,449	29,366	6,687	263	13,002	5,507	480	2,636	1,180	10,706	13,728	12	243
2016년	10,967	28,234	7,119	260	12,580	5,605	510	2,758	1,514	10,197	12,896	12	230

출처: 보건복지부, 「2015~2017 아동복지시설 현황·공동생활가정 현황·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주: 1)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 합계(가정위탁 제외) 2) 개인양육시설 포함

한편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전체 3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5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0개소이다. 시·군 중 천안이 12개소로 가장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은 아동복지시설이 없다.

〈표 2-3〉 시·군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아동양육시설	자립생활관	아동공동 생활가정	비고
계	36	15	1	20	
천안시	12	3		9	
공주시					
보령시	2	2			
아산시	7	2		5	
서산시	3	1		2	
논산시	3	3			
계룡시					
당진시	1			1	
금산군	3	1	1	1	
부여군	1	1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1			
예산군	2	1		1	
태안군	1			1	

출처: 보건복지부(2015) 아동복지통계자료.

한편 충남의 지역아동 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현재 224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에 총 6,20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479명, 초등학교 저학년은 2,436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2,192명, 중학생은 907명, 고등학생은 185명 등이다. 기타는 대안학교 이용학생으로 8명이다. 전국현황은 총 시설수 4,059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0만 8천 9백 36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표 2-4〉 충남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 분	지역아동 센터 수	이용 아동 계	아 동 현 황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기타
전국 합계	4,059	108,936	3,533	81,087	20,121	4,035	160
충 남	224	6,207	479	4628	907	185	8

출처: 보건복지부(2015) 아동복지통계자료.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2015년)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내 드림센터는 총 15개소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아동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의 드림 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만 0(임산부 포함)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사업 내용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선택 서비스로 분류된다. 기본 서비스는 모든 드림 스타트 센터에서 모든 대상 아동에게 실시된다.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로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외에도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실시된다. 필수 서비스는 건강 검진 및 예방, 정신 건강, 산전 산후 관리, 기초 학습 지원, 사회 정서 지원, 부모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선택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 지원, 학습 지원, 문화 체험, 양육 지원 등이 있으며, 아동 발달 및 사업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선택 제공되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입·퇴소 현황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시설(2016년도/ 아동양육시설)은 14개소로 전체 입소인원은 636명으로 남자 343명, 여자 293명이다. 입소아동 중 미취학 아동은 127명이며 초등학교 174명, 중학교 139명, 고등학교 142명, 대학교 49명 그리고 기타 5명이다.

〈표 2-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충남)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종사 자수	정 원	입 소 인 원			취 학 아 동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미만	3~6세미만					
계	27	515	1,796	1,240	679	561	1,240	80	146	354	283	288	81	8
2015년	13	227	957	604	336	268	604	31	68	180	144	146	32	3
2016년	14	288	839	636	343	293	636	49	78	174	139	142	49	5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7)

한편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전국적으로 2015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5,749명이며, 퇴소한 아동은 5,988명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학대 2,340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부) 959명, 비행가출부랑아 735명, 유기 472명, 가정해체 438명, 빈곤실직 43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소는 원가정복귀 2,270명, 타시설로 전원 1,643명, 취업자립 1,252명, 가정위탁 565명, 입양 215명이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현황(2015년)을 보면 입소아동 184명이며 퇴소아동은 166명이다. 입소이유는 학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빈곤실직 29명, 유기 18명, 가정해체 16명 순이다. 퇴소는 원가정복귀 65명, 취업자립 62명, 타시설로 전원 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시도별 입퇴소 현황(2015. 12. 31 기준)

구분	입소									퇴소							
	계	유기	미혼모(부)(혼외자포함)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	가정해체	학대	전입	계	원가정복귀(연고자인도등)	취업자립	가정위탁	입양	전원		사망탈원
															아동시설	기타시설	
계	5,749	472	959	9	735	432	438	2,340	364	5,988	2,270	1,252	565	215	1,384	259	43
충남	184	18	3	-	1	29	16	101	16	166	65	62	5	-	27	6	1
서울	1,901	356	715	8	284	107	31	316	84	1,929	493	211	535	164	450	56	20
부산	187	11	4	-	1	16	14	117	24	277	68	134	-	3	47	21	4
대구	259	6	21	-	33	22	17	142	18	262	123	98	-	3	29	9	-
인천	252	1	5	-	-	15	48	176	7	238	102	52	5	-	66	13	-
광주	237	2	39	-	1	55	18	91	31	223	71	47	4	3	73	24	1
대전	277	3	4	-	196	11	6	53	4	275	219	33	1	-	13	8	1
울산	81	-	1	-	-	6	9	64	1	83	57	12	-	-	9	5	-
세종	8	-	-	-	-	5	1	-	2	13	8	2	-	-	3	-	-
경기	903	55	35	-	64	46	140	507	56	973	375	187	6	21	350	32	2
강원	209	1	19	-	2	26	21	123	17	210	88	26	7	3	74	12	-
충북	173	3	20	-	62	17	21	40	10	213	87	60	-	16	28	15	7
전북	436	6	16	1	83	12	19	281	18	422	216	68	-	-	115	19	4
전남	289	2	54	-	6	40	31	116	40	302	134	89	1	2	58	18	-
경북	136	-	4	-	-	3	22	91	16	173	68	81	-	-	20	4	-
경남	151	6	8	-	2	20	17	84	14	164	62	76	1	-	12	10	3
제주	66	2	11	-	-	2	7	38	6	65	34	14	-	-	10	7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취업형태 및 분야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2017년 현재 퇴소아동의 취업형태는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이며 취업분야는 서비스직 7명, 기능직 5명, 단순노무직, 전문직 각 3명, 판매직 2명, 농어업 1명, 기타 3명이다.

〈표 2-7〉 퇴소아동 취업형태 및 분야

구분	취업형태				취업분야												진학중복
	정규직	비정규직	미입력	소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미입력	소계	
2015	10	3	3	16	0	3	1	1	0	0	0	5	4	2	0	16	1
2016	16	7	1	24	0	3	0	7	2	1	5	0	3	3	0	24	2
2017	18	5	0	23	1	4	1	7	1	1	3	1	2	2	0	23	5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3. 자립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된다. 아동자립지원관련 사항은 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간식비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지원 등이 있다.

〈표 2-8〉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사업

구분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
세 부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간식비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추가지원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교구 교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안전 점검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력지원 -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서 구입비지원 - 학원수강비 지원(수학 여행비 통합) - 가정위탁보호비추가지원 - 미취학아동유치원·어린이집특별활동비지원 -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시설아동 독서활동비지원 - 시설아동 안경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아동 건강 유지비 지원 - 시설아동상해 보험료 지원 - 정서함양프로그램지원 (하계수련활동비 통합)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정부지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매칭하여 월 4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즉,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과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규모는 2,339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부담하며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하는 것이다.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세주택지원이 있다.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만20세 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의 만료시 기존주택전세임대료 연계가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다. 지원절차는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를 통보한다.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당 5백만원 1회 지원한다.

사회적응훈련비 지원은 생활시설 아동(미취학아동 제외)에게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한다. 1인당 월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이다.

간식비지원은 생활시설아동에게 1인당 일 2천원을 제공하며,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으로 만15세-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해 1인당 연간 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또한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은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수강비지원으로 1인당 연간 7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아동 독서활동비지원으로 1개소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정서함양프로그램지원으로 문화생활 및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내 지원한다. 또한 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충남도)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자립증진지원으로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1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표 2-9〉 자립지원 관련 사업(충남)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방법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145명 (도비 30%/시군비 70%)	퇴소, 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입계좌에 입금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생활시설 아동 (미취학아동 제외)	601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교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간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763명 (도비30%/시군비 70%)	간식비 지원	1인당 일 2천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만15-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345명 (도비30%/시군비 70%)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중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자	62명 (도비 30%/시군비 70%)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26명 (도비 30%/시군비 70%)	참고서 구입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학원수강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35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 특성에 맞는 학원수강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70만원이내
시설아동 독서활동비 지원	생활시설	38개소(83명) (도비 30%/시군비 70%)	시설 내 독서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1개소당 연간 60만원 이내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 6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아동자립증진지원	생활시설가정위탁 아동	1개소, 20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지원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 지원 등	도 직접 집행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생활시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350명 (도비 30%/시군비 70%)	문화생활,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미만의 아동 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과중위소득 40% 소득수준아동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재구성

한편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자립지원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운영)이 있으며 시·도단위에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은 2012년 아동복지법 내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아동복지법제38조 자립지원, 동법 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사업단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의 설치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주거, 진로, 경제생활 등의 자립준비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주요기능은 아동자립교육 및 자립체험훈련, 자립지원과 아동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및 운영평가,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과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아동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아동자립지원사업 홍보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표 2-10〉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

구분	사업대상	내용	예산
심리정서지원사업	2017년 종합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의 의료 및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	맞춤형 아동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종사자교육	130,000천원
자립지원DB 운영	-	퇴소 및 퇴소에정아동 기초자료입력, 자립계획 및 개별사례관리, 자립지원 통계 공유	9,500천원
자립체험관 운영	고등학교 재학생 및 연장아동, 종사자	1,2단계(시설내 별도의 자립체험관 진행) 3단계 외부자립체험관 : 거점체험관 2개소 및 향립자립생활관 연계	17,500천원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중학생 78명(기존3명+신규3명) 시설당 종사자 6명 : 자립전담요원, 상담원, 중학생담당 생활지도원4명(78명)	아동가계금융 역량강화교육, 종사자 금융 역량강화교육, 아동 경제상담 및 코칭, 사업평가 등	23,000천원
자립역량강화교육	고등학교	직업체험, 자립멘토링, 자립관련교육	12,000천원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재구성

충청남도의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남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6천만원이다. 주요사업은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그리고 자립역량강화교육이다.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중 심리, 정서, 인지,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프로그램 및 사례관리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아동은 2017년 아동양육시설 종합심리평가 결과 고위험군⁵⁾으로 분류된 아동으로 의료 및 전문기관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이다. 세부사업은 맞춤형 아동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종사자교육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심리정서안정을 통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로 자립능력 향상, 그리고 아동보호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자립지원DB운영은 퇴소 및 퇴소예정아동의 기초자료입력과 자립계획 및 개별사례관리, 자립지원 통계를 관리한다.

자립체험관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중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자립후 생활체험, 퇴소 전 자립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립체험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1, 2단계는 아동복지시설내 별도의 자립체험관에서 진행하고 3단계는 아동복지시설 외부자립체험관(2개소)에서 실시한다. 3단계 자립생활체험은 외부의 별도공간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체험해 보고 자립준비하는 과정이다.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돈관리기술)은 시설생활 아동에게 경제적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적 소비관리능력의 향상 및 계획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 자립역량강화교육은 다양한 전문 직업군의 선배 및 전문가와의 만남, 직업체험활동 등을 경험함으로써 진로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분야의 실제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컨설팅(서류작성 및 모의면접 실습)과 자립선배와의 만남으로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

5) 고위험군은 품행, 적대적 반항장애, 강박 및 공포증, 우울 및 양극성장애, 신경심리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 장애 포함), 장애진단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의료 및 전문기관의 전문적 개입 및 필요시 약물 및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이다.

제3절 시설퇴소 아동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 연구에서는 자립의 개념과 자립의 하위유형 그리고 이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논의가 있다. 특히, 퇴소 아동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 활성화의 개념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립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아동은 물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 자립이란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의미하며,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하위영역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의사결정 등 기본적인 생활기술과 자원의 이용, 직업 등 자원관리기술의 범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Cook, 1986).

한편, Maluccio 등은 자립준비의 하위영역을 구체적 기술과 무형의 응용기술 두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Maluccio, Krieger, and Pine, 1990). Nollan 등은 자립준비의 하위영역을 돈·주거관리, 교육적 및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 자기보호, 정신적 발달, 사회적 발달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Nollan et al,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이해연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기술의 하위영역으로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성교육·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아성장과 사회성개발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개괄하고 이들 변인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조사한 바 있다(이해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2007).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자립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 하위영역 범주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부합한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자아성정,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유지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접근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립지원과 심리, 사회적 접근방법에 대한 것이 주류이나 지역별 특성과 개별 욕구분석을 통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진국의 자립지원정책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로 양육시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모색을 시도하였을 뿐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의 퇴소아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배주미 외, 2011).

한편, 취약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사회, 환경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노충래, 2001; 신혜령 외, 2008). 특히 이들은 직장생활유지, 지속적인 학업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은선, 2004).

근래에 취약 아동의 자립지원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변인으로서는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지지 등이 광범위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선옥, 2010).

황정하, 박수지(2017)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립생활기술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개인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장벽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빈곤아동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설퇴소 아동의 빈곤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빈곤한 청소년들의 환경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김영아, 2001). Brooks-Gunn & Duncan(1997)의 연구에서는 비빈곤 아동의 55.2%가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데 비해, 빈곤 아동은 37.4%가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빈곤아동에서 11.7%, 비빈곤 아동에서 6.5%였다.

6) 빈곤원인에 대한 논의는 이두호 외, 1991,『빈곤론』, 한림과학원 총서와 김태성, 손병돈, 2016,『빈곤론』, 형지사를 참조할 것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1994)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빈곤아동은 출생 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요인은 아동·청소년발달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Brooks-Gunn, 1995).

빈곤아동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반 아동, 청소년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배제되어 결국 빈곤이 되물림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아동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검증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의 소득이다.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용돈이나 필요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가족의 소득이 적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게 된다(이경상 외, 2008). 따라서, 아동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시설퇴소 아동에게도 동일한 영향요인이며 더 크게 작동될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아동의 학업성취 역시 경제적 지원이 필수요소이며, 이는 결국 가족으로부터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빈곤 가정에서의 학업성취와 상위학교의 진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에서 뒤떨지게 되어 역시 빈약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다. 결국, 빈곤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제약, 사회, 심리적 제약, 교육기회 제한 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기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퇴소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연구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규필, 정경은(2016)은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을 통해 자립준비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학업상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내 부적응 청소년보다 준비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소속집단별로는 아동 복지시설과 소년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용환(2003)은 충남도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자립을 위한 준비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용율이 전국 평균 34.64%보다 낮은 26.67%임을 제시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15년이 지난 연구이며, 구체적 대안 제시 역시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2011)은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72명의 델파이 조사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립지원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실무자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자립정착금지원 개선, 주거공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체계 구축강화, 심리정서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 강화, 사회기술 역량 강화 경제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 아동청소년의 시설퇴소 전후의 상태에 따른 대안제시의 구체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실시한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서는 퇴소 아동의 문제점으로 주거의 불안정성, 진학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높은 불안정한 취업상태, 빈곤계층으로의 진입 가능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 불충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비, 자립지원금의 표준화와 생활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 주거환경구축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기능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과 욕구를 통한 대안 제시가 주목할 만한 보고서이며, 최근에는 제시된 개선방안 중 일부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자조집단 형성 등의 개선방안은 여전히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유영립, 양영미, 박미현(2015)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하에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퇴소 청소년 7명을 이야기식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졌던 삶의 무게, 타인에 의한 자립에 자력을 더함, 자립의 기쁨, 홀로서기의 외로움의 상위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정책, 퇴소 전 원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원가족 없는 시설퇴소 자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 체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 조사방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퇴소 청소년의 직업상태, 욕구분석과 유형에 따른 대안의 매칭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의 편차 개선, 자립정착금 사용 관리 교육 및 지도 강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수립 시 정착금 사용에 대한 상담, 지도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안정된 삶을 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의료기관 등)에는 사후관리의 조기종결 하용방안 마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시스템 관리 보완, 대학 진학 후 휴학 시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16.1.25.).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설퇴소 아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2016)는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에서 전국단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중 종결 이후 5년 이내 아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경제, 주거, 진학, 취업현황 및 건강, 심리사회적 현황이다. 조사결과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자립종결 기간 5년의 사후관리에 대해 기간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호종결이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 재정관리 지식부족 등의 순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자금 마련에서 정부기관 활용이 2012년에 6.6%에서 2016년 33.9%로 5.1배 증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경제현황에서 수급자인 경우가 28.2%로 낮은 수준이지만, 월평균 소득이 123만원이었으며, 당시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25일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최저소득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월평균 소비액이 138만원 수준으로 소득 대비 지출에서 약 15만원의 부족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이나 소득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가 42.8%로 다른 학생진학율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취업유형이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 진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등의 혜택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퇴소 아동이 취업중인 경우는 51.1%이며, 48.9%가 취업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취업자 중 72.7%가 정규직, 27.3%가 비정규직이며, 80.3%가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85.9%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생활기술에 대해서는 자기보호기술과 사회적기술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나 돈관리기술에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여 돈관리기술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심리적 상태에서는 자존감과 유능감이 다소 낮고, 나아가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우울,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원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19.3%이며, 보호기관과도 24.2%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립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보호종결 전 자립수준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자립기술을 습득케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부담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사회적 지지망 확대, 공식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제도개선과 공공지원 확대, 그리고 자기계발지원 확대 및 취업지원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용환(2016)은 보호종결 이후 지원기관별 자립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립지원서비스 유형은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이며, 이 중 정부와 지자체와 아동복지시설, 민간, 아동자립지원단의 직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가 보호종결 대상자들의 취업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방법이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퇴소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퇴소 아동의 자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미래에 대한 희망수준, 타인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생활 기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진로 장벽이 낮을 경우에 역시 자립생활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입소 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지원함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목표 제시, 지지체계 연결, 진로장벽을 낮추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시 퇴소 시 후원 우선 연결과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전문가를 통한 재정관리 교육, 지속적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 등이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사점이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의 영향변인과 정책시사점과 더불어, 현재 시설퇴소 아동이 겪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제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시설퇴소 아동은 자체적인 자조모임이나 조직화가 되어 있지 못해, 자신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퇴소 아동의 법적 지원 종결 이후 지원할 단체나 대변 할 사회 복지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⁷⁾. 입소했던 시설과의 연계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 후 자립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셋째, 원가족을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 가족을 통한 지지와 후원, 격려, 정서적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퇴소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원체계나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 지지체계의 부재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존 제도나 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7) 지자체, 중앙자립지원사업단, 민간단체 등이 보호종결 후 5년까지는 사후관리를 각자 하고 있으나 그 이후와 퇴소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지원이나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제3장 충남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실태

제1절 서비스 제공자 심층면접 분석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

1) 입소 사유 및 아동의 실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들은 주로 아동학대를 받아온 아동들이었다.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72시간 일시 보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70-80%의 아동이 학대를 당해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로 아동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때문에 지금의 아동 거주시설은 과거 ‘고아’라고 불리우던 부모 없는 아이들은 없고 부모가 있되 부모들이 보호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시설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에서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충남까지 오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시설을 방문했을 시에도 여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베이비 박스를 통해 시설로 들어 온 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설로 들어온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시설에 입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때는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시설보다 가정 위탁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 보호가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①학대에 의한 방임으로 시설 입소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피학대 아동이다. 아동학대로 인해 들어오는 아이가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학대피해 아동들이다.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72시간 일시 보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시설에 입소하고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형편이 못되거나 시설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시설에서 장기 거주하게 된다. 내가 알기로 충남에서 입소 아동의 70-80%는 아동학대로 인해 입소하는 아이들일 것이다. 그만큼 아동학대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고아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아들이 아동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여자 2)

아동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오는 학대 피해 아동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설 아동의 대부분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다. (참여자 1)

②가정의 문제로 인한 입소

결손아동과 피학대 아동이 많다. 결손 아동은 이혼, 별거, 빈곤,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시설에 오는 아이들의 많은 경우 아이 부모들의 문제로 오게 된다. (참여자 3)

학대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모가 어려우면 시설로 오기도 하지요. 결국 가는 데가 시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참여자 1)

③베이비 박스의 영향-미혼부모 아동의 입소

베이비 박스가 매스컴을 탄 이후로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 서울까지 가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방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참여자2)

④아동 보호의 현실적 문제 대두 - 호적, 시설 평가, 장애아 구분

베이비 박스가 생긴 이래 그 아이들을 서울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입양특례법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쪽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하고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맡기면 입양이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자 2)

아동복지법에 입소 대상 아동을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입소 아동 양육의 보호 내용에 따라 시설 평가에 차등이 있다.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면 점수가 높다 보니,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적 있었다. 문제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 새롭게 봐야한다 해서 이런 기준이 없어지기는 했다. (참여자 3)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결손, 학대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시군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시설 혹은 가정 위탁을 결정해 주는데 시설 보호 유형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시설로 가는 것으로 말이다. (참여자 2)

우리 시설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7명 있다. 장애있는 아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시설 아동 중 약 10%는 지적 장애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적 장애 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 시설 아동 중 10%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을 보호하려면 13개 시설 중 하나는 장애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참여자 3)

2) 입소 아동의 특성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생활 의욕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가서도 자격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을 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설 생활에 져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서 나오는 정착금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많았다.

기초학력도 낮아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2년제 대학을 주로 갔고, 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은 시설이 학습 환경이 안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설 아이들이라 하여 따돌림을 많이 당하였다. 이 아이들이 주로 학대 피해로 시설에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다, 학교에서는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따돌림과 폭력이 악순환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①무기력과 무계획적인 생활

대학에 가서는 자격증을 못 따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자격처럼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취득을 하지만 시험을 봐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못따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2)

요즘은 성적이 안 좋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 시설 아동들도 고3때 대학 견학을 가기도 한다. 대학을 보내놓으면, 스스로 관리 능력이 안되서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시설에서 통제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자유스런 대학 생활이 되다 보니, 돈도 마음대로 쓰게 되고, 시간도 규칙없이 사용하여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문제다. (참여자 1)

이 시설을 나가게 되면, 정착금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어디에 쓸거냐고 물으면 우선 중고 자동차 사고, 마음껏 돌아다녀서 정착금 다 쓰고 나서 그 때부터 돈을 벌겠다는 애들이 여럿 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참여자 2)

고3 아이에게 물었더니, 500만원 받으면 일단 그것 가지고 놀다가 다 쓰고 나면 그때 가서 취업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이렇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돈이 조금만이라고 생기면 우선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3)

②낮은 기초 학력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없다고 봐야한다. 이 아이들은 오래 앉아 공부하지 못한다. 공부도 습관인데, 이 아이들은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가면 엎드려 자거나 하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아이들은 노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다. (참여자 2)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정말 공부를 하온 아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학교에 가면 거의 잔다고 한다. 학교에서 시설로 와서도 공부보다는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노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대학도 거의 2년제를 가거나 주변에 있는 대학에 간다. (참여자 3)

공부에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주변 아이들이 공부를 안하니깐 다 안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형 누나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보고 안한다. 그래서 학력 수준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1)

③지역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또 지금은 사춘기를 초등학교때 경험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싸우고 오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시설아이를 별로 반가와 하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가면 문제를 더 일으킨다. 아이들이 적응을 더 못하고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된다. 또 여기 아이들 중에 지적 능력이 안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거나 싸우기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참여자 2)

시설에서 왔다고 하면 학교에서 일단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시설에 오기 전 부모로부터 상처 받고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다. 어떤 아이는 기가 죽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로 찍히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참여자 1)

3) 아동의 시설 생활 적응

아동이 시설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우선 부모로부터 격리되었는데, 그 격리가 주로 학대나 가정 결손이라서 입소하는 순간부터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더구나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는 시설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설 아동 중 상당 수는 ADHD, 분노조절장애, 학습능력 장애 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동들인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부터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부모와 연락이 자주 안되는 아이들은 시설이나 학교에서도 일탈의 비율이 높아 부모의 존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설 아동들은 단체 생활 가운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취업 등에 있어 계획적이거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①장애 있는 아동의 험난한 시설 생활

지적 장애가 있거나 여러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들이 입소 아동의 10%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봐야 한다. 비장애 아이들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힘든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시설 생활이 힘들다. 본인들도 힘들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선생님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참여자2)

시설에 오는 애들은 결손, 학대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시군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시설 혹은 가정 위탁을 결정해 주는데 시설 보호 유형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시설로 가는 것으로 말이다. 장애있는 아이들이 오면 다른 아이들까지도 힘들어진다. (참여자 3)

우리 시설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7명 있다. 장애있는 아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시설 아동 중 약 10%는 지적 장애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적 장애 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 시설 아동 중 10%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을 보호하려면 13개 시설 중 하나는 장애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참여자 3)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거부하였다. 심리적으로 공격성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거부하는 아이를 시설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이들을 아무 대책없이 시설로 바로 보낸다는게 문제라고 본다. 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가 있던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아동 거주시설로 보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3)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관심도 열의도 없는 아이들이다. ADHD, 분노조절장애, 학습능력장애 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참여자 2)

②부모 없는(연락이 안되는) 아이의 일탈 행동

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좌우한다. 부모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지지체계가 있어서인지 보호하기가 좀 수월하다. 물론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있더라도 연락을 끊고 사는 아이들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참여자1)

가끔 부모와 연락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지 어떤때는 말을 잘 듣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와도 생활 지도를 상의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아예 관심을 안두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도벽이 있기도 하다. (참여자 1)

시설 아이들은 고등학교때는 시설이나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데, 중학교때는 적응을 잘 못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아마 사춘기 때문인가 보다. 고등학생들은 암전히 학교를 잘 다니는데, 중학생들은 시설에서 또래들이나 선후배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참여자 1)

③목표 없는 시설 생활

올해 대학 진학을 3명이 했다. 이들이 가서 생활을 잘 하기 바랄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과반이 실업계고등학교에 간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좋은 점이 학교에서 취업을 다 시켜 준다. 그래서 아이도 좋고 시설도 좋다. 하지만 아이들인 취업해서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다. 취업했다가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있다.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참여자 2)

고등학생인 경우, 취업처에서 졸업 전에 선취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여 3학년 2학기때 취업한다. 그러나 취업 후 한달이 안돼서 90%는 다시 시설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면서 학교에 가면 어차피 수업도 안하고 놀기 때문이다. (참여자 3)

요즘은 성적이 안좋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 시설 아동들도 고3때 대학 견학을 가기도 한다. 대학을 보내놓으면, 스스로 관리 능력이 안되서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시설에서 통제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자유스런 대학 생활이 되다 보니,

돈도 마음대로 쓰게 되고, 시간도 규칙없이 사용하여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문제다. (참여자 1)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인 한 반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없다고 봐야한다. 이 아이들은 오래 앉아 공부하지 못한다. 공부도 습관인데, 이 아이들은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가면 엎드려 자기나 하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아이들은 노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다. (참여자 2)

매년 ○○대학에서 하는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하는 이유는 그 캠프가 신앙 캠프인데, 아이들의 생활 태도를 신앙을 통해 변화해 보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캠프를 주관하는 측에 고맙기는 하지만 매년 참가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자 2)

몇 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암전히 학교생활은 잘 한다. 그러나 공부는 거의 안한다.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성적은 대부분 하위권에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게임이나 노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아이들은 대학은 공부를 안 해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성적이 안되어도 대학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하더라도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다. (참여자 1)

2.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1)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퇴소전에 자립지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하고,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되었다. 아이의 연령에 맞지 않게 갑자기 많은 현금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다. 물론 자립지원관이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보험 가입, 씬씀이의 우선 순위 등을 교육한다지만 자신의 통장에 몇천만원의 현금이 있다는 것은 소비의 유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 보다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이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목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립지원금

시설에서 자립은 자신의 가정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남의 13개 시설에서 아동을 모아서 1차, 2차 독립 생활을 연습시키고 있다.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임대해서 스스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여자 1)

퇴소하면 국가에서 전세 지원금 4,5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이것은 23세까지 해주는데, 아이들 중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전세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참여자 1)

현재 우리 충남에는 자립지원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원장이 자립지원단 회장을 맡고 있다. (참여자 1)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목표이지만 그게 힘들다.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고 간다 하더라도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원가정으로 복귀는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 2)

자립과 관련하여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공식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CDA,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동 일인당 지원금 500만원, CDA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후원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나간다고 볼수 있다. 많게는 4000만원까지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 3)

②단계적 지원의 필요성

이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많이 아이들이 엉뚱한 데다 돈을 쓴다. 중고차를 산다거나 좋은 옷을 산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돈을 쓴다는 것이다. 돈 관리를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이다. 10년이 지나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 4)

아이들이 전세로 가면 좋겠지만,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가는 것이 좋겠다. LH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자립심이 더 약해지는 것 같다. (참여자 4)

갑자기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안 연락을 안하던 부모나 친인척들이 그걸 노리고 접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

2)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에서 아동 거주 시설은 어쩌면 섬과 같은 존재이다. 연구자가 방문한 3개 시설 중 2개 시설은 근린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역 사회와 거리감을 갖고 있다. 물론 사안별로 지역 사회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자원봉사, 상호 방문 등을 하고 있었다.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시설장들은 지역 사회에 미안한 입장이었다.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만두기 때문이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당장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역의 기업도 자원봉사에는 적극적이지만 취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아동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①지역사회에 미안한 시설의 입장

기업에 취업 부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시설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왔고, 서비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하다. 남이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직장에서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또 의지가 약해서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있어서 사장님들한테 취업 부탁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렵게 취업 부탁하여 직장에 가게 해 놓으면 며칠 다니다가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그만두니 미안해서 부탁할 수 가 없다. (참여자 1)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생산직에 취업을 한다. 생산직은 월 180만원 정도를 벌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도 힘들면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말하기가 미안하다. (참여자 4)

어떤 아이는 퇴소 후 사장님이 후견인이 되어서 돈 관리, 생활 관리를 다 해주었다. 그리고 잘 성장하고 살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간섭이라고 여겼는지, 첫 월급을 받고서는 연락도 끊어 버리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원장으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였다. (참여자 1)

②외부 프로그램에 수동적인 아동들

중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것이 있다. 시설 출신 아동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다. 이 서포터즈가 시설을 나가고 나서 생활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등에서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언니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하면 후배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업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 아이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자 2)

매년 ○○대학에서 하는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하는 이유는 그 캠프가 신앙 캠프인데, 아이들의 생활 태도를 신앙을 통해 변화해 보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캠프를 주관하는 측에 고맙기는 하지만 매년 참가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리들이 억지로 참여한다는 인사를 받는다. 분명 거기에도 유익이 있을 텐데, 너무 수동적이다. (참여자 2)

또 ○○○대학과 함께 바우처를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못하고 있다. 직업 체험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체험해서 애들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프로그램을 줄였더니, 여전히 참여율이 낮다. 의미가 있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여자 2)

가끔 기업에서 시설 아이들을 도제식으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싫어한다.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더라고 알바식으로만 다니려고 한다. 직장의 개념으로 꾸준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몇 일 다니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그만두고 하는 식이다. (참여자 4)

③자립에는 도움이 안되는 기업의 활동

아이들이 직업을 알 수 있도록 잡월드와 연계하여 직업을 소개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는 하는데,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직업의 종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2)

기업과 연계해서 직업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기업은 봉사활동이나 후원을 하고자 하지 직업을 소개해 주지는 않는다. (참여자 1)

④시설 아동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입장

기업이 시설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선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마다 취업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업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다. 우리 도에 13명의 자립을 전담하는 전담관이 있는데 해마다 다르다. 우리 도에 자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이 시설에 600명, 위탁가정에 800명 정도 된다. 이들을 다 기업에 보낼 수 없다. (참여자 3)

경기가 좋을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다 늘 요구만 할 수는 없다. 사장님도 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참여자 1)

⑤시골에 있는 시설의 고립성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감

여기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딴 곳이다. 시내에 있다면 시내의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관계성도 갖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시골이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그 아이들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참여자 2)

시골이라 같은 초중고를 다녀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시골 아이들이라 도시로 나가면 도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다. (참여자 3)

대전같은 대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휘향 찬란한 밤거리에 도취되어 정신을 못차리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오래 살고, 친인척 방문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참여자 3)

3) 퇴소 전 아동들의 욕구 혹은 자격증

퇴소전 아동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했다. 이는 아이들이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하고, 돈을 스스로 번다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서 주로 비싼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게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했다.

갖고 싶은 자격증은 제빵, 미용, 운전 등 젊은이 취향의 자격증을 주로 선호 하였고, IT관련 자격증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쉽게 가는 시대가 되어서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아동들이 늘어났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시설을 나가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면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시설에는 아이들에게 알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 때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알바는 수능이 끝난 아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바를 하여서 몇 푼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참여자 2)

동생들은 수능 끝나고 알바하는 선배들을 동경한다. 알바하면 시설 밖에서 생활하고 또 거기서 얼마만이라도 돈을 벌수 있기에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3)

②갖고 싶은 자격증

아이들은 제과 제빵, 미용 자격을 선호한다. 아는 것이 이러한 자격일수 있고 쉽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주 보는 자격이기 때문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1)

아이들이 운전면허 자격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하고 있다. 5-6년 전부터 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어린 애들은 할 수 없고, 또 지적 능력이 안되어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에서 지원해 줘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도 자체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도 도 자체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2)

어떤 아이들은 실습이나 취업 후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도 하고 아이들은 주로 IT 계통의 자격증을 선호하는 것 같다.(참여자 3)

③이제는 대학으로

요즘은 웬만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시설에 더 머물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다.

막상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과 또 시설에 남아 있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다. (참여자 1)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갔던 시내의 ○○대학은 예전에는 시설 아동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었는데, 작년부터 일정한 학점이 되어야 면제해 주었다. 그래서 등록금의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대학을 선호한다. (참여자 1)

4)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자립생활관에 대하여

시설에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자립지원관은 아동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모든 생활을 간섭없이 생활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아동들은 참여하기 좋아하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 세탁, 시장 보기 등 가정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도청에서도 충남자립지원단 지원, 심리검사 지원 등 아동 거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임상 심리사는 13개 시설 중 10개 시설만 채용하였다.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광역 도는 충남이 가장 먼저일 정도로 선도적이다. 그러나 시설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사 채용이 쉽지 않다.

①시설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일정한 효과

시설에서 자립은 자신의 가정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남의 13개 시설에서 아동을 모아서 1차, 2차 독립 생활을 연습시키고 있다.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임대해서 스스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여자 1)

그리고 퇴소를 위해 퇴소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사회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얻어서 2박3일 동안 하고 나면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참여자 1)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1,2단계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3단계는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천안의 쌍룡동에 원룸을 얻어서 3박4일 동안 혼자 생활하도록 한다. 혼자 시장도 보고 밥도 해먹으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자 2)

② 도의 지원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부족

2016년에 충청남도로부터 아동복지시설연합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충남아동자립 지원점담기관이 있는데, 시설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지원단이다.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지원사업은 김대중정부때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13개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참여자 3)

도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심리검사를 하였다. 충남아동복지 시설협회를 통해 우리 시설 아이들도 하였다.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결과 정상, 관심, 취약군으로 구분하여 아이들을 심리 상태별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관심, 취약군이 60-70%나 되었다. 그만큼 시설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지금은 심리검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는 심리치료를 해볼 계획이다. (참여자 2)

자립과 관련하여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공식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CDA,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동 일인당 지원금 500만원, CDA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후원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많게는 4000만원까지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 3)

올해 도의 지원을 받아 충남 시설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심리검사를 한적 있다.

이 중 정상군 17%, 관심군 37%, 취약군 46%였다. 관심군에서 정상군으로 갈 수 있다. 취약군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답답한 아이들이다. 취약군 아이 중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3)

충남도의회에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풀 검사를 하였다. ○○○대학 아동복지학과 ○○○ 교수가 진행하였다. 타 시도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충남에서 실시한 것이다. 물론 부여의 ○○보육원은 자비를 들여 개별적으로 한 적도 있다. (참여자 3)

바우처로 매일 미술 심리치료를 하는데 6개월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임상심리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도내 13개 시설 중 10개설만 임상심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 임상심리사가 시설로 오지를 않는다. 시설이 싫을 수도 있지만, 시설이 대개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3)

현재 천안과 금산에 자립생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LH주택공사에서 5년간 지원 하는데, 천안이 도시이고 금산은 시골이다 보니, 천안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형국이다. (참여자 3)

③협회 차원의 지원과 아이들의 낮은 호응

중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것이 있다. 시설 출신 아동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다. 이 서포터즈가 시설을 나가고 나서 생활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등에서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언니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하면 후배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업하는 것처럼 말이다. (참여자 2)

협회에서 이렇게 하여도 아이들은 호응이 별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당장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참여자 1)

3.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1) 퇴소 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퇴소 이후에는 시설과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하였다. 본인이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과 연락을 자주 안한다고 하였다.

시설에서 나간다고 하여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매우 드물었다. 시설 입소 원인이 주로 학대나 결손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갈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퇴소 후에 취업은 주로 생산직으로 하였다. 이들이 저학력이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길이었다.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였어도 꾸준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도립대학에서 혜택을 준다하여도 굳이 도립대학을 선호하지 않았다. 인지도도 낮고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

①시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아이들

아이들이 퇴소하면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수가 없다. 아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웬만해서는 시설과 연락을 안하려고 한다. 퇴소 후 5년간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연락을 안하기도 하고, 연락처를 변경해 버리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아이들은 시설에서 나가면 전화번호부터 바꾸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1)

자격을 취득하여 취직하고, 장사해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런 아이일수록 시설과 연락을 안하고 산다. 시설에서 살았다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 시설에서 살았다고 안하고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자 2)

아무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고 연락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 그러면 원장이 부모 역할을 해주고, 결혼식에 다 참석해서 축하도 해주고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아예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는 정말 서운하다.(참여자 1)

우리 시설에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지 20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무조건 퇴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대학에 진학하면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장려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해서 후배들을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램이었다. 자기 살기도 바쁜지, 아니면 시설에서 살았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인지 대학 졸업해서도 시설과 인연을 끊은 애들이 많았다. (참여자 2)

아동의 입장에서 본인의 행동이나 처지가 원장의 기대와 불일치 하면 연락을 끊어 버린다. 또 이직하였을 때 이전 직정보다 안좋으면 연락을 안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교류할 대상이 아니거나 상의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무척 서운하다. 시설에는 최대한 잘 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퇴소 후에 시설에서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아동도 시설에서 혜택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락을 잘 안한다. (참여자 3)

40%정도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봐야 한다. 세월이 가면 연락 두절되는 아동이 더 늘어난다. (참여자 2)

②떨기만한 원가정으로의 복귀

작년에 원가정으로 간 아이가 한명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안가고 혼자 살고 싶어 한다. 원가정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여기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 인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1)

③주로 단순 생산직에 취업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데, 취업은 주로 생산직으로 한다.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시설 아동들은 학교 성적이 대체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참여자 1)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생산직에 취업을 한다. 생산직은 월 180만원 정도를 벌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도 힘들면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많다. (참여자 1)

하지만 아이들인 취업해서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다. 취업했다가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있다. 한 직장애 오랫동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참여자 2)

아이들의 취업은 주로 고3때 생산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폴리텍 대학에 가서 기술을 배우도록 권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폴리텍 대학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대학을 가가고 싶어한다. (참여자 1)

생산직 등 제조업 분야에 주로 취업한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학습에 흥미가 없는 애들은 3D업종에 취업할 수 밖에 없다. (참여자 3)

④젊은이 취향으로 취업

작년에 ○○대를 졸업한 학생은 제빵제과 자격을 따서 홍석천이 하는 아카데미에 취업했다. (참여자 1)

이번에 고등학교를 2명 졸업하게 되는데, 한 명은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였다. 이 아이는 요리에 취미가 있어서 자격증이라고 땃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을 해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만 있다면 시설로서는 만족한다. (참여자 1)

⑤기피하는 도립대학

충남 도립대학에서 시설 아동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천안에서 봤을 때, 도립 대학은 매우 한적한 시골이다. 도립대학에 대한 매리트가 아이들에게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에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립대학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참여자 2)

도립대학에 대해 잘 모른다. 여기는 시골이고 대전하고 가까워서 대학을 가더라도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려하지 도립대학까지 가려는 아이들이 없다. (참여자 3)

도립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서 기숙사 생활도 안좋아 한다. 무조건 자취하려고 한다. (참여자 1)

⑥장애있는 경우 시설 전원

또 한명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장애시설은 ○○원으로 전원시켰다. 주로 학대 받는 아이들이 시설로 오는데 많은 아이들이 지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아동 시설에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는 ○○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참여자 1)

주로 학대로 인해 시설에 들어오는데, 아이의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시설로 의뢰되어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장애인 시설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가 나뉘에 장애인 시설로 보낸다. (참여자 2)

2) 퇴소 후 겪는 어려움

퇴소 후에는 심적으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에 있을 때 자립지원 프로그램 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다 해도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두렵다. 또 어린 나이이기도 하다. 또 시설에서 나가면 지원금과 후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는 부모나 친인척이 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여 그걸 빼앗아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취업, 결혼, 이사 등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장사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다.

①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이가 일단 퇴소하게 되면 시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이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아이가 시설로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크게 도와 줄수 없다. 그리고 퇴소를 위해 퇴소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사회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다. (참여자 1)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아이일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해도 이런 것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참여자 2)

생각이 좀 있는 아이들은 시설을 나가기 전 고민을 많이 한다. 나가서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이 많은 것이다. 여기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만 나가면 아무래도 힘들 것을 미리 아는 것이다.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참여자 3)

②경제적 어려움

아이가 퇴소하게 되면 후원금이 바로 끊어진다. 퇴소 후에는 시설에서 받았던 후원금, CDA, 자기가 저축한 돈 등 이런 것을 모아서 나가야 한다. 퇴소하면 시설과는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도 시설에 계속 거주하면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참여자 1)

아이가 2천만원 정도 가지고 나가면 불행하게도 부모, 친인척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먼저 다가와서 그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경우는 부모나 친인척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 2)

③아직 덜 된 사회화

퇴소하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다. 주소 이전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참여자 1)

여기 아이들은 퇴소 후에 결혼하는데도 귀가 얇다.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 누군가 좋게 대해 주기만 하면 쉽게 동의하고 넘어가고 속기도 잘한다. 어떤 여자 아이는 퇴소 후에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친절했던가 보다. 그 남자가 잘 해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남자가 좀 잘해 주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 여자 아이는 나중에 알콜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들을 위해 자립지원 교육을 해도 나가서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참여자 2)

스스로 할 수 있는일 즉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떼는 일, 명절 때 어른 섬기는 것, 경제 교육 등 모두 자립 교육에 포함된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효과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참여자 3)

3) 퇴소 이후 주거와 특성

퇴소 이후 주거는 매우 불안정 하였다. 주로 원룸에서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였다. 주거를 자주 옮기니까 시설과 연락도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LH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역시 돈 관리가 문제였다.

그리고 원가정과는 거의 결합하지 않고 연락도 안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아마도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막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인다.

①불안정한 주거

퇴소하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다. 이 아이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분명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선거때가 되면 우리 시설로 투표하라고 선거인 명부 뭐 이런 것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갖다 줄 수도 없다. (참여자 1)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 같다. 이사를 자주 다니고 핸드폰 번호도 자주 바꾸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직장이 변변치 못하니까 직장 따라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원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참여자 2)

② 많은 지원 그러나 부실한 관리

주거는 LH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른 지원도 있다. 자립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제도가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 2)

또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돈으로 실손 보험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돈 관리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 할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이 쉽게 돈을 써버려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기 힘들다. (참여자 4)

어떤 아이는 집 관리를 못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월세 살면서 장판을 다 고장내서 집주인하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참여자 4)

8년 동안 30여명의 아이가 LH 임대 주택 등 주거문제에 혜택을 봤는데 기숙사있는 LG, 삼성에 취업을 했다. 월급의 80%만 적립하면 자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월급을 잘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자 3)

LH주택공사에서 전세지원, CDA 지원 1000만원 지원이 있어서 자립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후원하면 아이 본인이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잘 안된다.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3)

③원가정과 시설 보다는 자신의 삶 추구

대부분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안가고 혼자 살고 싶어 한다. 원가정으로 가기를 싫어 하는 것은 여기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1)

시설에서 경험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대학을 가더라도 기숙사에 안가고 자취를 선호한다. 자취하면서 알바도 하고 친구들과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한다. 이런 것은 여기를 나가서도 마찬가지다. 주로 원룸 얻어서 혼자 생활하고 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하지 않는다. (참여자 2)

결혼 배우자를 만나도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자수성가 했다고 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상대 측에서도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시설과 연락 않고 주로 원룸 같은데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1)

4) 퇴소 아동과의 교류

퇴소아동들은 자신이 생활한 시설과 연락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다. 본인이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다. 혹시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시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퇴소 아동은 본인이 필요하면 시설을 방문하여 용건을 보거나 하지 일부러 시설을 방문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이런 일 때문에 시설 직원들은 서운한 마음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①연락을 꺼리는 퇴소 아동

시설에 자립전담요원을 채용한지 5년이 되었다. 도내 13개 시설에 자립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3년전부터는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었다. 자립전담요원은 퇴소 아동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2-3년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본인의 행동이나 처지가 원장의 기대와 불일치하면 연락을 끊어 버린다. 또 이직하였을 때 이전 직정보다 안좋으면 연락을 안한다. (참여자 3)

아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웬만해서는 시설과 연락을 안 하려고 한다. 퇴소 후 5년간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연락을 안하기도 하고, 연락처를 변경해 버리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아이들은 시설에서 나가면 전화번호부터 바꾸는 아이들이 많다. (참여자 1)

자격을 취득하여 취직하고, 장사해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런 아이일수록 시설과 연락을 안하고 산다. 시설에서 살았다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1)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아이가 먼저 아는 체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이이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퇴소후에 시설의 경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퇴소 후 시설에서 도와준다고 덤비다가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 (참여자 1)

시설에서 회사나 집으로 찾아가면 매우 싫어한다. 시설과 연락을 끊고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참여자 2)

②본인이 필요시 방문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로 반드시 시설에 들러야 한다. 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오는데, 그 때 말고는 거의 시설 방문을 안 한다. (참여자 2)

간혹 홈커밍데이, 명절 때 인사를 오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시설과 연락을 끊고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10명 중 2명 정도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다. (참여자 2)

③서운한 마음

내가 인간적으로 교류할 대상이 아니거나 상의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무척 서운하다. 시설에는 최대한 잘 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퇴소 후에 시설에서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아동도 시설에서 혜택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락을 잘 안한다. (참여자 3)

아무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고 연락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 그러면 원장이 부모 역할을 해주고, 결혼식에 다 참석해서 축하도 해주고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아예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는 정말 서운하다. (참여자 1)

퇴소 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OO회’식으로 모임을 만들어 상호 부조하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한다. 그러나 시설과는 웬만하면 연락을 안하려고 한다. 그럴때는 너무 서운하다. (참여자 1)

5)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현재 아동 거주 시설에 지원하는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동 거주 시설장의 입장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비해 결코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다만, 아동이라는 연령 연령의 특성 때문에 아동 거주 시설로 보내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장애 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 중단된 해외 연수를 재개하기를 바랬고, 한 참여자는 단순한 해외 여행 지원 보다는 그 비용으로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다.

①물질적 지원은 어느 정도 충족

아동시설은 장애인, 노인 시설에 비해 지원이 많다고 생각한다.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피복비는 보조금에 포함되어 나오고, 쌀은 후원 받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돈은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을 매달 줄 수 있도록 나온다. 그리고 간식은 하루에 2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 피복비는 년 70-80만원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롱패딩이 유행이라서 일인당 40-50만원 하는 것을 원하는 애들은 다 사주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여자 1)

②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아동에게 문제를 발생하였다고 할 때,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가야한다. 언젠가 한번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인 시설로 보내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보낸 적이 있었다. 장애아동,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낼 만한 기관이 없다. 이런 아동들은 가입소 기간을 두어서 선택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학대 아동을 시설에서 받아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보내야 하고,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시설로 보내야 한다. 무조건 아동 거주시설로 보내는 것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참여자 2)

③ 선진지 견학의 부활

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아쉽다. 아동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6000만원 정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아동이 중복해서 가는 것은 도에서 싫어한다. 작년에 갔던 아이가 또 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자 2)

④물질적 지원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지원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크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까지는 해외 탐방이 있었는데, 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진행했다. 아동 80명, 종사자 20명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평가에서 나온 말이, 4박5일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시설 아동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여행사에서 출입국 서류도 다 적성해 주고, 아동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갔다 온 것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차라리 60만원씩 주고 방글라데시나 이런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 (참여자 3)

4. 인터뷰 종합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1>와 같다.

<표 3-1>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분석 종합

단계	범주	하위 범주
입 소 시	입소 사유 및 아동의 실태	학대에 의한 방임으로 시설 입소
		가정의 문제로 인한 입소
		베이비 박스의 영향-미혼부모 아동의 입소
		아동 보호의 현실적 문제 대두 - 호적, 시설 평가, 장애아 구분
	입소 아동의 특성	무기력과 무계획적인 생활
		낮은 기초 학력
		지역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아동의 시설 생활 적응	장애 있는 아동의 험난한 시설 생활
		부모 없는(연락이 안되는) 아이의 일탈 행동
		목표 없는 시설 생활
퇴 소 전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 과 효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립지원금
		단계적 지원의 필요성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에 미안한 시설의 입장
		외부 프로그램에 수동적인 아동들
		자립에는 도움이 안되는 기업의 활동
		시설 아동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입장
	퇴소 전 아동들의 욕구 혹은 자격증	시골에 있는 시설의 고립성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갖고 싶은 자격증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자립 생활관에 대하여	이제는 대학으로
		시설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일정한 효과
		도의 지원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부족
퇴 소 후	퇴소 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협회 차원의 지원과 아이들의 낮은 호응
		시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아이들
		멀기만한 원가정으로의 복귀
		주로 단순 생산직에 취업
		젊은이 취향으로 취업
		기피하는 도립대학

		장애있는 경우 시설 전원
퇴소 후 겪는 어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아직 덜 된 사회화
퇴소 이후 주거와 특성		불안정한 주거
		많은 지원 그러나 부실한 관리
		원가정과 시설 보다는 자신의 삶 추구
퇴소 아동과의 교류		연락을 꺼리는 퇴소 아동
		본인이 필요시 방문
		서운한 마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물질적 지원은 어느 정도 충족
		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선진지 견학의 부활
		물질적 지원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지원

먼저,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들은 주로 아동학대를 받아온 아동들이었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정 문제에 발생하여 시설로 아동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에서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충남 까지 오고 있었다.

두 번째, 입소 아동의 특성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개 생활 의욕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도 낮아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2년제 대학을 주로 갔고, 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은 시설이 학습 환경이 안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설 아이들이라 하여 따돌림을 많이 당하였다.

셋째, 아동의 시설 생활 적응을 보면, 아동이 시설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부모와 연락이 자주 안되는 아이들은 시설이나 학교에서도 일탈의 비율이 높아 부모의 존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취업 등에 있어 계획적이거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넷째,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서는 퇴소 전에 자립지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하고,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안되었다.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 보다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이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목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에서는 연구진이 방문한 세 시설 중 두 시설은 근린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역 사회와 거리감을 갖고 있는 듯하였다.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시설장들은 지역 사회에 미안한 입장이었다.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만두기 때문이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기업도 자원봉사에는 적극적이지만 취업에는 소득적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퇴소 전 아동들의 욕구 혹은 자격증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고, 운전면허, 제과 제빵 등 익숙한 자격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입학이 수월해져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시설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곱째,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자립생활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 자립지원단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경우, 시설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만 아이들이 적극성이 부족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여덟째, 퇴소 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에서 보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시설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성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하겠지만, 아동들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원가정으로 가기 보다는 원룸 등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였다.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로 생산직에 많이 가고 있었다.

아홉 번째, 퇴소 후 겪는 어려움은 퇴소 후에는 심적으로 많은 두려, 지원금과 후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경우는 부모나 친인척이 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여 그걸 빼앗아 가는 경우도 생긴다. 사회 부적응이나 사회에서 사기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열 번째, 퇴소 이후 주거와 특성은 퇴소 이후 주거는 매우 불안정 하였다. 주로 원룸에서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LH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열한 번째, 퇴소 아동과의 교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혹 퇴소한 시설 아동이 본인이 필요하면 방문하지만 그런 경우도 드물었다.

열두 번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최초 보호 아동이 발생 할 때, 장애 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보내기를 바랬다. 비장애아동을 주로 보호하는 시설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선진지 견학이 단절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활, 물질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절 입소아동 심층면접 분석

1. 시설 입소 후 생활 만족도

1) 시설 거주 시 어려운 점

시설 거주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50여명 이상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가 있고 많은 원생이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 보호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현재 도에서 초·중·고등학생별로 차등적으로 용돈은 지원하고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에서 산다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시설에 적응하는 것 또한 힘들지만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나중에 사회 생활하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①단체 생활의 불편함

외출 외박에 대한 자율성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단체생활로 인하여 사생활보호 및 의사반영이 어렵다.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학업 및 특기적성을 위한 학원연계가 잘되어 있고, 방별 프로그램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좋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소방, 교통,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4)

단체생활에 따른 기상시간, 식사시간, 귀가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 개인사정에(건강상태, 친구모임, 배고픔 등)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불편하다. (참여자 5)

②후원금의 부족

시설에 들어와서 경험해 보지 않았던 많은 프로그램을 해봐서 재밌고 만족하고 어려운 점은 개인 후원금이 부족한 것이다. (참여자 1)

시설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점은 대학 진학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금전부분이 부족한 점입니다. 생활하면서 생활면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은 매우 만족한다. (참여자 2)

③사회적 낙인

사람들이 시설에서 산다고 하면 뼈뺏하게 보는 것 같다. 나는 시설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가 걱정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교성이 없으면 적응이 힘들고 소외되기 쉬우며 같이 지내는 다른 아이 하나가 잘못된 인성을 가질 경우 다른 아이들도 잘못된 인성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참여자 3)

④좁은 실내 환경

주거환경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방 하나에 3명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이 불편하다. 프로그램은 개인적 용무(친구와의 약속 등)가 있어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참여자 2)

2)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만족도

학교 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불만족한 것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들과도 무난하게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성적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하지만 성적 향상이 안되어 불만이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학습 의욕도 약하였다.

①낮은 학력

학교 생활의 만족도도 거의 만족입니다.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는 늘 좋은 관계였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1~2학년때 성적이 중간밖에 되지 않아서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한것이다. (참여자 2)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여 아쉽다. 교우관계는 무난하였으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시설에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학교 공부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 (참여자 3)

②무난한 친구 관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시설 상황을 많이 배려해주셔서 학교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친구와도 원만하게 잘 지냈다. (참여자 1)

친구들과 관계도 좋으며, 성적향상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음-학원후원(참여자 4)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가 좋다. 어릴적 부터 꿈꿔온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현재 다양한 병원에서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진학 희망하며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 5)

3)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지급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 가정 아동들과 비교를 자주 하게 되고, 그들은 풍족한 것 같은데, 시설 아동은 늘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지출하는 핸드폰 요금, 군것질 등 지출하는 곳이 많았다. 그렇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아동도 있었다. 저축은 시설에서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어 저축을 하고 있었다.

①부족한 용돈

용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만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나보다 적게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쓰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만족한다. (참여자 1)

학교 생활비용은 큰 어려움이 없었고 용돈은 일반 가정집 친구들보다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었다. (참여자 2)

용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주변 아이들에 비교 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였으며 월 3만원의 용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 된다.(참여자 3)

월 용돈 3만원+간식비 6만원= 9만원 중 7만원으로 생활한다. 잔액 2만원 저축한다. 본인은 핸드폰요금을 후원받고 있지만 용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하다. (참여자 4)

월 용돈 3만원+간식비 6만원= 9만원 중 7만원으로 생활한다. 잔액 2만원 저축하고 있다

과거 핸드폰요금을 용돈에서 지출함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후원받고 있어 조금은 편하게 사용하지만 친구들과 약속이 많은 달에는 부족하다. (참여자 5)

②저축하는 생활

월 용돈 9만원 중 2만원은 저축하여 나중에 유용한 곳에 사용하려고 한다. 아마 이런 습관을 잘 하면 좋을 것이다. (참여자 4)

용돈 중 일부는 꼭 저축을 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5)

4)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원만하고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아동들이 사귀는 친구의 숫자를 보면 4명 이하로 매우 소규모였다. 친구들도 시설 친구들보다는 학교친구를 더 친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마도 시설 밖의 친구들과 더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 같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4명 이하의 친구들과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특성상 시설의 규정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무한정 어울릴 수 없고 친구를 쉽게 집(시설)로 데려 올 수 없으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다.

①원만한 교우 관계

두루두루 친구들과 친하지만 그 중 친한 친구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참여자 1)

초등학생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1명과 고등학교 2학년때 알고지낸 친구와 제일 친하며 고등학교 3학년때 반 친구들 4명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자 2)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 있으며 현재 같은 학교 재학중이다. 내가 시설에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있고 그 외 그냥 편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 (참여자 4)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졌지만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져 잘 지낸다. 현재 1명의 친한 친구가 있다. (참여자 5)

② 시설의 규정으로 친구 사귀는데 아쉬움

친한 친구가 2명정도 있는데 시설 규칙상 외박이 되지 않아 같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두고두고 아쉬움.(참여자 3)

2. 자립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1) 자립이란?

자립은 스스로 생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없이 사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에서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립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필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①스스로 일어서서 생활하는 것

기관 혹은 누군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수는 없는 것이다. (참여자 5)

스스로 자 自, 설립 立, 혼자 생활하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스스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참여자 4)

그동안 살았던 시설에서 퇴소하여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 한다. 여기서도 좋았지만 앞으로 나가서 잘 살아 볼 생각이다. (참여자 3)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하는 게 적었지만 자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1)

②두렵고 어려운 것

자유로움이지만 두려움이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참여자 5)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며 아직 퇴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막연한 느낌이고, 머나먼 이야기라고 여긴다. (참여자 4)

③사회인이 되는 필요한 과정

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립으로 통해서 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자립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2)

2) 시설에 거주하면서 참여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만족도

시설에서 운영한 다양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자립생활과 체험,

캠프, 디딤씨앗통장 등이 만족한 프로그램이라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이 자립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화 체험비가 많기를 바랬다.

①직접 체험해서 만족

자립생활관 체험, 자립캠프, 자립교육, 디딤씨앗통장 교육 등을 했고 자립하고 집 구할 때 유의할 점, 디딤씨앗 통장에 대하여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고 만족한다.(참여자 1)

②자립 능력 향상

자립준비프로그램을 했던 종류들은 시설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 프로그램이 있다. 이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능력이 향상된 거 같아 만족스럽다.(참여자 2)

③문화체험비 상승 요구

전체적으로 만족하나 문화체험비가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도 몇박 몇일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 됨.(참여자 3)

3) 고등학교에서 취업 수강한 취업 교육 만족도

고등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장래를 위해 간호조무사, 캐드, 측량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눈을 먼저 돌리는 것 같다. 회계, 금융, 엑셀 등의 교육을 받았고 그 지식들로 인해서 전사회계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ERP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이 쉬워지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실제로 진학도 많이 하였다. 대학 진학을 하면 졸업시 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만족한 취업 프로그램과 장래 희망

특성화고에 있는 간호학과 재학중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하였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한다. (참여자 5)

현재 학교에서 캐드와 측량을 배우고 있으며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지게차와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컴퓨터쪽을 배우고 있다. 캐드와 측량 자격증은 1년안에 취득할 계획이다. (참여자 3)

고등학교에서 취업 관련하여 회계, 금융, 엑셀 등의 교육을 받았고 그 지식들로 인해서 전사회계 2급, 컴활 2급, ERP 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참여자 2)

취업관련 교육으로 직장예절을 주제로 배웠고 만족하며 취득하고 싶은 분야는 고등학교 1~2학년때 배우고 전사회계 1~2급을 따고 싶다.(참여자 1)

②취업보다는 대학에 있는 꿈

대학진학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은 아직은 없고 고민 중이다. (참여자 4)

4)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 연계 및 만족도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아동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외부 자원에 감사

일반 후원자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간식, 식사 봉사

등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참여자 1)

아동자립지원단 및 여러 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장학금제도를 지원해주셔서 매우 만족합니다.(참여자 2)

여러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이 있어 이만큼 생활이 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음.(참여자 3)

학업성적 향상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후원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만족한다. (참여자 4)

5) 자립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교육은 금전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마 선배들이 금전 관리를 잘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지 않았나 싶다. 또 어린 나이에 자립지원금, 후원금, 저축한 돈 등 갑자기 많은 액수의 금전을 가지고 있으며 금전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전 교육을 강하게 원하였다. 그 다음은 정서 지원, 취업교육, 주택 지원 등이었다.

①금전 교육

돈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집구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참여자 5)

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퇴소 후 정착금 사용 혹은 급여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퇴소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정서적 지원을 희망한다. (참여자 4)

자립에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을 절약하여 쓰는 방법이나 아끼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참여자 3)

자립생활교육, 준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 지식과 금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2)

충분한 사전 교육과 돈 관리 방법을 자세히 한 번 더 배웠으면 좋겠다. (참여자 1)

②취업 교육

취업기술 즉,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요즘은 이력서를 잘 써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학교를 한번 졸업하면 돌아갈수 없다. (참여자 5)

③주택 지원

전세주택지원을 희망한다. 나가서 당장 살 집이 없으면 그게 문제 아닌가. 전세라도 얻을 수 있다면 불안감이 좀 덜할 것 같다. (참여자 4)

3. 인터뷰 종합

이상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5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입소아동 인터뷰 종합

구분	범주	하위 범주
시설 입소 후 생활 만족도	시설 거주 시 어려운 점	단체 생활의 불편함
		후원금의 부족
		사회적 낙인
		좁은 실내 환경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만족도	낮은 학력
		무난한 친구 관계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	부족한 용돈
		저축하는 생활
	친구관계	원만한 교우 관계
		시설의 규정으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
자립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자립이란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하는 것
		두렵고 어려운 것
		사회인이 되는 필요한 과정
	시설에 거주하면서 참여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만족도	직접 체험해서 만족
		자립 능력 향상
		문화체험비 상승 요구
	고등학교에서 취업 수강한 취업 교육 만족도	만족한 취업 프로그램과 장래 희망
		취업보다는 대학에 있는 꿈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외부 자원 연계 및 만족도	외부 자원에 감사
	자립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금전 교육
		취업 교육
		주택 지원

첫째, 시설 거주시 어려운 점은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 사생활 보호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족할만하게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다른 한편 시설에서 산다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은 학교생활에서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학습 의욕도 약하였다.

셋째,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은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지급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핸드폰 요금, 군것질 등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에 비해 용돈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아동도 있었다.

넷째, 친구관계는 원만했지만,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자립에 대하여 자립은 스스로 생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지만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립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필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섯째, 시설에서 운영한 다양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자립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화 체험비가 많기를 원하였다.

일곱째, 고등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장래를 위해 간호조무사, 캐드, 측량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눈을 먼저 돌리는 것 같다.

여덟째,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아동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교육은 금전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마 선배들이 금전 관리를 잘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지 않았나 싶다. 그 다음은 취업교육, 주택 지원 등이었다.

제3절 퇴소아동 심층면접 분석

1. 퇴소 이후 생활 실태

1) 주거 형태의 만족과 어려운 점

현재의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LH전세 주택지원 제도를 통하여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때문에 퇴소 후 정착지원금이 속히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 집을 구하다 보니 습하고 곰팡이 있는 집을 얻기도 하는 등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퇴소를 한 후에는 정착금이 빨리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야 집 없이 방황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①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의 만족

현재 주거형태는 LH전세 주택지원을 받아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큰 목돈이 들지 않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참여자 1)

현재 주거형태는 LH전세주택지원을 받아 경기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이나 전세금이 6,000만원이다. 집을 구할 당시(2017년 2월) 전셋집이 워낙 없었으며 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를 집주인들이 기피하여 어쩔 수 없이 원룸으로 집을 구하였으나 가격대비 좋지 않은 것 같다. 습하고 곰팡이가 자주 피며 환기가 잘 되지 않지만 목돈이 지출되지 않아 생활 만족도는 높다. (참여자 3)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세주택지원을 이용하여 동생 명의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대학교 진학 후 학교근처에서 친구들과 년세로 살다가 졸업 후 천안으로 와서 동생과 함께 거주고 있다. 투베이로 동생과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다. (참여자 5)

②부담스런 월세

현재 주거형태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월세가 매우 부담스럽다. 좀 더 알아보고 집을 구했어야 했는데 집이 깔끔하고 시내에 위치해 있어 집을 구했는데 위치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참여자 2)

③퇴소 후 시급히 요구되는 정착 지원금

자립지원정착금, 보증금과 개인후원금으로 사용하여 월세집을 구입하였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때까지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설에서 지냈다. 퇴소 후 바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정착금지급이 가능하면 좋겠다. (참여자 4)

2) 취업 혹은 대학 진학 만족과 어려운 점

취업이나 대학 진학 수 퇴소 상황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회사 적응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에서 수동적으로 의식주를 받다가 사회에서는 거의 혼자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대체로 만족한 퇴소 후 생활

○○대학 호텔조리외식계열 음료경영전공 졸업 후 갤러리아 스시히로바에서 1년 2개월 째 근무하고 있다. 여기는 9시 출근해서~ 21시 퇴근하고 4대보험가입이 되고 월180~2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래도 주 5일근무로 휴무가 2일이며(요식업에서는 대부분 6일근무임) 휴무에 근무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 5)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아 ○○대학 외식산업학부(제과제빵)에 진학하였으며 졸업을 앞두고 관련 업종에 근무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장님 및 동료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만족한다. 대학졸업 및 취업 때까지 시설에서 지냈다. (참여자 4)

취업이 아닌 진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다. 대학 학과 특성상(경호학과) 선후배 및 동기간 유대관계가 높으며 서로 챙겨주기에 만족스럽게 재학하고 있다.(참여자 3)

현재는 잠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중이나 전에 사무직을 하였다.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입사하여 근로 하였으며 적성에 잘 맞아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 충전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을 할 예정이다.(참여자 2)

20살 때 시설에서 퇴소 후 조기취업으로 생산직으로 취업하였으며 군입대를 하였다. 군입대 기간 중 단기하사(6개월)에 지원하여 하사로 전역하였다. 그 후 생산직으로 다시 취업하였으나 퇴사를 하고 현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만족도는 급여가 작아 만족도가 낮은편이나 근무가 어렵지 않고 야간근무가 적성에 맞아 급여외 근무 만족도는 높은편이다. (참여자 1)

②인간 관계의 어려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 (참여자 5)

직장 선배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 (참여자 2)

③회사 적응의 어려움

직업의 특성상 출근시간이(7시출근) 빨라 기상 및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다. 역시 사회는 만만치 않다. (참여자 4)

3) 현재 소득 수준 및 국가의 지원 여부와 내용

현재 소득 수준은 130여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수준이다. 청년 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시설 아동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퇴소를 하였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과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노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

현재 월 130여만 정도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으며 LH의 주거지원지원을 받는 것 외에 정부 지원은 받고 있지 않다.(참여자 1)

직장생활을 할 때 현재 월 130~150여만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다. (참여자 2)

현재 소득은 월 180~200만원이다. 대학교에 다닐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월 45만원에서 55만원 중의 생계 급여를 받고 생활하였다. (참여자 5)

②국가의 지원은 전무

현재 월 130여만 정도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으며 LH의 주거지원지원을 받는 것 외에 정부 지원은 받고 있지 않다.(참여자 1)

직장생활을 할 때 현재 월 130~150여만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다.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참여자 2)

③과거 다양한 단기 노동

경호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을 얻어있는데 1일 10만원 정도로 월4~6회, 월40~6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참여자 3)

4) 퇴소 전 시설과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및 교류

퇴소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자립지원 담당 교사와 꾸준히 연락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 시설에서 하는 홈커밍데이와

같은 행사에도 얼굴을 비치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과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설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는 소원해 진 것으로 보인다.

①시설과 지속적인 교류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과 자주 연락을 하고 있으며 1년에 1번하는 시설 홈커밍데이에 가급적이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퇴소 후 군대에 있는 시간을 뺀 나머지는 매년 참여하고자 한다. (참여자 1)

시설에서 생활할 시 담당 생활지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언니들과 연락을 자주하여 만나고 있다. (참여자 3)

②가족과는 전화 정도의 교류

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지만 시설(정신장애관련)에 입소해 계셔서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참여자 1)

할머니가 계시나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끔 전화통화만 하는 정도이며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나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참여자 2)

친부와 친고모와는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 (참여자 5)

5)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속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의 매우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친한 친구만 사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시설 아동들은 사람에게 정을 쉽게 주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①소수의 친구

친구 관계는 거의 없으나 군대 동기들은 1년에 1~2차례 만나곤 한다. 그나마 군대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같아서 만나지만 여기 친구나 사회 친구들은 잘 만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맘이 편하다. (참여자 1)

친구 관계는 나쁘지 않아 2~3명의 친구와 연락, 만남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남자 친구와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남자 친구와는 사귀지 3년째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고 있다. (참여자 2)

정말 친한 친구는 1명 있다. 저의 속깊은 이야기도 하는 편이고 친구가 잘 공감하여 이야기 하기 편하다. (참여자 3)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 탓인지, 고등학교 친구 1명과 대학교 친구 1명이 있으며 친한 친구라 비밀을 공유하고 시설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외 종종 만나는 친구가 5명 정도 있다. (참여자 4)

②무난한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나쁘지 않아 주변에 만나는 애들이 몇 있다. 이 친구들과 가끔 만나 맛있는 것 먹고 수다 떠는게 즐거운 일이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앞으로 이 친구들과는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자 2)

대학 동기 중 대부분 친하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낸다. 대학 친구들과 무난하게 지내고 가끔 연락하고 산다. 딱히 베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냥 지낸다. (참여자 4)

6) 퇴소 이후 어려운 점

퇴소 후 어려운 점은 이제 시설을 나가서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시설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회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고 시설 직원들과 시설 가족들에게 의존하였는데, 이곳을 나가면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느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①혼자 사는 외로움

혼자 산다는 것이 가장 막막하고 어려웠으며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게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참여자 1)

나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것과 아플 때 옆에서 챙겨줄 이가 없다는 것이 힘들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 (참여자 4)

②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정착금을 받았으나 계획적으로 지출하지 못해 거의 다 쓴 상태로 항상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고 해결이 안되는 것 같다. (참여자 2)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 물론 나 같은 경우 LH전세주택지원도 받았고 국가 장학금등을 통해 목돈 들어가는 게 없었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 (참여자 3)

생활비 부족이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학교 교재비 및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한 아르바이트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힘들었다. (참여자 5)

2. 현재 자립 상태

1) 자립이란?

자립에 대하여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현실적인 응답을 하였다. 자립은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퇴소 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매우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① 스스로 사는 것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자립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렵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참여자 1)

② 책임감을 갖는 것

그동안은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었으나 성인으로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2)

어려운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3)

③ 힘들고 두려운 것

혼자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참여자 4)

현실이고 이제는 일상생활이다.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그냥 편히 지냈지만, 퇴소 후 맞닥뜨린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립이다.(참여자 5)

2)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은 금전 관리,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원금, 후원금 등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고객을 응대하는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혼자서 세탁, 식사, 청소 등 집안 살림 하는 것도 힘들게 느꼈다.

①금전 관리

슬기롭게 저축하고 지출하지 못한 점이 가장 어렵고 후회됩니다. 그때 좀 더 아끼고 저축하였으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2)

취업 후 돈관리가 가장 어려웠으며 그동안 써보지 못한 돈을 쓰려니 겁도 나고 절제가 되지 않아 많이 저축하지 못하고 거의 쓴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참여자 1)

②사회 생활

동생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전세주택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취업 후 고객을 응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참여자 5)

③혼자 사는 것

혼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식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하는 것, 옷 다려 입는 것, 김장해야 하는 것,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다. (참여자 4)

④경제적 어려움

다른 친구들처럼 생활비가 여유롭지 않아 항상 부족하게 생활하는 게 다소 어려웠다. 돈이야 많으면 좋지만 생각처럼 경제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참여자 3)

3) 취업, 창업, 진학 등에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 등 정보 등을 이용하였고, 시설의 선생님, 전 직장에서의 안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활용하였다.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하였고, 본인이 활용 가능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여 정보를 취업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퇴소 아동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정보망 이용

취업을 위해 구직신문이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많이 활용하였으며, 길거리를 가다가도 취업 광모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 보았다. (참여자 1)

필요시 인터넷, 교차로 등 구인 광고지를 활용하여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참여자 2)

②인맥 활용

시설의 자립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곤 하였다. 확실히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때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참여자 1)

전 직장에서 취업자리를 연계해주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참여자 2)

취업을 위해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수도권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비싼 물가와 주거의 어려움으로 인근지역으로 알아봤다. 다행히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었다. (참여자 4)

대학졸업 후 동생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서 요식업 계통으로 알아보다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처음부터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으나 일에 대한 익숙함과 함께 일하는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좋고 편안해서 가족같은 분위기라 일하기 좋은 것 같다. (참여자 5)

4)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설의 자립 선생님, 과거 친구들, 남자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상담이나 수다 혹은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지인의 도움이 정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축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 등 예방적인 활동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①지인의 도움 요청

시설의 자립담당 선생님과 연락을 하며 지내어 해소하고 있다. 시설에 있을때부터 많이 도와 주신 분이래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 (참여자 1)

정서적 어려움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기도 한다. 친글 만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참여자 5)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에게 호소하고 의지하는 편으로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참여자 2)

②예방적 활동으로 어려움 대처

경제적인 부분은 항상 부족한 편으로 그동안 일하면서 저금한 돈을 활용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참여자 1)

자립정착금이나 CDA금액에서 생활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저축을 하여 돈을 아끼려고 한다. (참여자 3)

정서적으로는 독서 및 음악을 들으며 생각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적금통장(CDA)을 해지할 것이다. (참여자 4)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근로하며 적금을 넣을 것이다.(CDA저축, 보험, 은행저축 등) (참여자 5)

5)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①자립체험관의 도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건 일상생활 기술 중 요리 능력이었다. 그전에는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몰랐으나 자립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밥, 국, 반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1)

퇴소전 상담(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돈관리 및 집구하기, 직장생활기술 등 퇴소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과지지)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4)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자립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활용으로서 동사무소, 관공서, 병원 이용 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2)

②늦게 깨달은 자립체험관의 효과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같지만 그때는 와 닿지 않아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것 같다. 막상 퇴소 후 생활해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알게 된 것도 얻는 것도 많게 되는 것 같다. 모든지 닦쳐야 하는 것 같다. (참여자 5)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한 프로그램이었으나 퇴소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요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자립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지겹고 하기 싫었지만 퇴소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2)

6) 현재 취득중인 자격증이나 준비 중인 자격증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 퇴소 아동들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는 상황이었다. 나름대로 퇴소 후 준비를 자격증으로 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①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때 ERP 2급과 한글 엑셀, 파워 포인트 자격증을 취득하다. 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였다. (참여자 2)

②운전면허증

별도로 운전면허 1종 자격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운전면허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은 운전면허 자격증은 필수아닌가(참여자 2)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 운전면허1종과 유도 단증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유도로 했는데, 이걸 취업과는 무관하다. 운전은 잘 해야 할 것 같다. (참여자 3)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실제 취업은 전공과 상관없는 쪽에 취업을 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자 1)

③요리 분야 자격증

현재 제과 · 제빵 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조경기능사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자 4)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와인주니어소물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이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취득했다. 이걸 따기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하다. (참여자 5)

7)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준비, 정보 회득을 하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①철저한 준비

자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최고인 것 같다.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하고, 자립 기술 습득도 필요하며 시설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1)

부지런함과 생활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세상은 냉혹해서 나태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설에서 보자는 분명히 훨씬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여자 5)

②주거 준비

자립 전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 주거, 생활부분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거문제만 해결되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시설에서 도움을 줄 때 받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다. (참여자 2)

③정보 획득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보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3)

④신속한 지원

주거지, 퇴소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자립지원정착금지원, 전세주택지원, 자립생활관 등이 빨리 지원 된다면 정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자 4)

3. 인터뷰 종합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5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퇴소아동 인터뷰 종합

구분	범주	하위범주
퇴 소 이 후 생활 실태	주거 형태의 만족과 어려운 점	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의 만족
		부담스런 월세
		퇴소 후 시급히 요구되는 정착 지원금
	취업 혹은 대학 진학 만족과 어려운 점	대체로 만족한 퇴소 후 생활
		인간 관계의 어려움
		회사 적응의 어려움
	현재 소득 수준 및 국가의 지원 여부와 내용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
		국가의 지원은 전무
		과거 다양한 단기 노동
	퇴소 전 시설과 그리고 가족 과의 연락 및 교류	시설과 지속적인 교류
		가족과는 전화 정도의 교류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소수의 친구
		무난한 친구 관계
현재 자립 상태	자립이란	혼자 사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스스로 사는 것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
		금전 관리
		사회 생활
	취업, 창업, 진학 등에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혼자 사는 것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정보망 이용
		인맥 활용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지인의 도움 요청
		예방적 활동으로 어려움 대처
	현재 취득중인 자격증이나 준비 중인 자격증	자립체험관의 도움
		늦게 깨달은 자립체험관의 효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
		철저한 준비
		주거 준비
		정보 획득
		신속한 지원

첫째, 주거 형태의 만족과 어려운 점에서 현재의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LH전세 주택지원 제도를 통하여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때문에 퇴소 후 정착지원금이 속히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취업이나 대학 진학 수 퇴소 상황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회사 적응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현재 소득 수준은 130여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수준이다. 그리고 퇴소를 하였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넷째, 퇴소 전 시설과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및 교류에서는 퇴소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설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는 소원해 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친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의 매우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일곱째, 퇴소 후 어려운 점은 이제 시설을 나가서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시설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회는 스스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자립에 대하여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현실적인 응답을 하였다. 퇴소 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매우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홉째,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은 금전 관리,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원금, 후원금 등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고객을 응대하는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혼자서 세탁, 식사, 청소 등 집안 살림 하는 것도 힘들게 느꼈다.

열 번째,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 등 정보담을 이용하였고, 시설의 선생님, 전 직장에서 안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활용하였다.

열한 번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은 시설의 선생님과 연락하여 해결방법을 찾거나 남자 친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축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였다.

열두 번째,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열세 번째,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

열네 번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준비, 정보 획득을 하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 4장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대상자별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유형별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대별하여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A, 입소 아동참여자는 B, 퇴소 아동참여자는 C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지원 활성화, 경제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즉,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지 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 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 처리)이다.

셋째,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이다.

〈표 4-1〉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유형 분류

구분		서비스제공자(A)	입소아동(B)	퇴소아동(C)
사회적 지원 활성화	지지체계 강화	◎	○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경제적 지원 활성화	재정관리 교육 강화		◎	◎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	◎
자립프 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
	지역 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 그램 개발	○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		◎

주 : ◎ 2개 이상, ○ 1개, × 없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과 함께 기존의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퇴소전, 퇴소이후)을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현재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3가지로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다.

<표 4-2> 현행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신규 지원 방안

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신규)	
1.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교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1.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 지원방법 :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 계좌에 입금	1.사회적 지원 활성화	- 지지체계 강화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2.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2.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 내용 : 시설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자로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 부담.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임. 지원 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지원절차 :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 통보	2.경제적 지원 활성화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3.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재정관리 교육 강화
			-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4.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지원내용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 정착지원금 제공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
5. 아동자립증진지원 - 지원내용 :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지원 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 지원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2억지원 (도비)		3. 자립 프로그램 활성화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6. 아동발달지원계좌 - 지원내용 :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 지원방법 :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2.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 - 아동적립상황에 따라 적립금액 차이발생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 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자립역량강화교육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제1절 사회적 지원 방안

1. 지지체계 강화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인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퇴소이후 자립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사회 속에 던져진 느낌, 외로움, 두려움을 더 큰 자립의 어려움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이러한 지적은 서비스제공자, 입소아동, 퇴소아동 모두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좌우한다. 부모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지지체계가 있어서인지 보호하기가 좀 수월하다. 물론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있더라도 연락을 끊고 사는 아이들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A참여자1)

가끔 부모와 연락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지 어떤 때는 말을 잘 듣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와도 생활 지도를 상의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아예 관심을 안두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도벽이 있기도 하다.(A참여자 1)

스스로 자 自. 설립 立. 혼자 생활하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스스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B참여자 4)

따라서, 사회적 또는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하며 지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도 원가족과의 애착, 공감대 형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하되, 원가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후원가능한 원가족 찾기 및 연계, 교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지와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기는 하나 원가족이 가지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시설퇴소 아동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계시나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끔 전화통화만 하는 정도이며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나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C참여자 2)

친부와 친고모와는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 (C참여자 5)

따라서, 원가족 중에 교류가 가능하고 지원이나 지지가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 퇴소 전부터 전화교류, 명절방문 등을 통해 원가족과 퇴소 전 아동의 관계와 정서적 교감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2.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지원단 사업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아동들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감 있게 자신도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같은 시설 출신 선배나 지역 출신 선배를 멘토로 연결하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것이 있다. 시설 출신 아동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다. 이 서포터즈가 시설을 나가고 나서 생활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등에서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언니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하면 후배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업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 아이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A참여자 2)

협회에서 이렇게 하여도 아이들은 호응이 별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당장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A참여자 1)

퇴소 아동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 요인 중 미래에 대한 희망요인이 있으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정하, 박수지, 2017). 특히 입소, 퇴소 아동 모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두려움과 포부를 동시에 갖게 된다.

특성화고에 있는 간호학과 재학중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하였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한다. (B참여자 5)

고등학교에서 취업 관련하여 회계, 금융, 엑셀 등의 교육을 받았고 그 지식들로 인해서 전사회계 2급, 컴활 2급, ERP 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B참여자 2)

시설의 자립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곤 하였다. 확실히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때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C참여자 1)

따라서, 시설출신 퇴소아동을 멘토로, 시설내 퇴소를 준비하는 아동을 멘티로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와 인맥활용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로 활동하는 퇴소 아동에게는 10만원정도의 후원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받은 후원금으로 멘티 격려금으로 1만원정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면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자료와 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⁸⁾. 이는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과 이용절차 등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봉착하거나 공공부조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상황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표화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8)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로, 지자체의 경우 복지알리미, 희망수첩, 복지포털 등의 용어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고 있음

퇴소하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다. 주소 이전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A참여자 1)

스스로 할 수 있는일 즉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떼는 일, 명절 때 어른 섬기는 것, 경제 교육 등 모두 자립 교육에 포함된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A참여자 3)

돈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집구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B 참여자 5)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보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 참여자 3)

이처럼 퇴소아동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쉬운 용어와 만화로 만들어 퇴소 아동에게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경제적 지원 방안

1. 재정관리 교육 강화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으로 금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절실히 깨닫는 것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경제관념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을 사후에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돈으로 실손 보험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돈 관리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 할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이 쉽게 돈을 써버려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기 힘들다. (A참여자 4)

자립에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을 절약하여 쓰는 방법이나 아끼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B참여자 3)

특히, 퇴소 아동의 경우 금전 관리와 저축 또는 효율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슬기롭게 저축하고 지출하지 못한 점이 가장 어렵고 후회됩니다. 그때 좀 더 아끼고 저축하였으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될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C참여자 2)

절제와 저축을 통한 희망의 미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금전 관리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약 50만원 수준) 지출할 경우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금융 자문인을 퇴소 전 연결하여 정보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고, 이후 50만원이상 지출 시 사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듣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취업 후 돈관리가 가장 어려웠으며 그동안 써보지 못한 돈을 쓰려니 겁도 나고 절제가 되지 않아 많이 저축하지 못하고 거의 쓴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C참여자 1)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근로하며 적금을 넣을 것이다.(CDA저축, 보험, 은행저축 등) (C참여자 5)

시설 서비스 제공자 역시 무계획적인 정착금 사용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조언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설을 나가게 되면, 정착금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어디에 쓸거냐고 물으면 우선 중고 자동차 사고, 마음껏 돌아다녀서 정착금 다 쓰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벌겠다는 애들이 여럿 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A참여자 2)

하지만 금융 후견인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빈곤이론에 근거(선발이론,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 등)에 빈곤아동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문화이론에 근거하여 조기취학프로그램(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선발이론이나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한 무상교육,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 저소득 대학생 우선선발 제도 등이 있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인 한 반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없다고 봐야한다. 이 아이들은 오래 앉아 공부하지 못한다. 공부도 습관인데, 이 아이들은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가면 얹드려 자기나 하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아이들은 노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다. (A참여자 2)

취업기술 즉,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요즘은 이력서를 잘 써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학교를 한번 졸업 하면 돌아갈수 없다. (B참여자 5)

본 연구에서는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우선지원에 더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하여 채용 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4.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정착지원금의 지원을 퇴소 전 지급하여 퇴소 즉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 및 신속처리 강화가 필요하다.

퇴소 후에 행정처리가 되어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립지원정착금, 보증금과 개인후원금으로 사용하여 월세집을 구입하였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때까지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설에서 지냈다. 퇴소 후 바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정착금지급이 가능하면 좋겠다. (B참여자 4)

주거지, 퇴소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자립지원정착금지원, 전세주택지원, 자립생활관 등이 빨리 지원 된다면 정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C 참여자 4)

따라서 모든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1.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지원 프로그램 적극성, 자발성 강화를 위해 참여 포인트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로 후원금 차등지급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아동의 특성상 무기력과 무계획성이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현금 인센티브, 정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것이 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 아이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A참여자 2)

또 ○○○대학과 함께 바우처를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못하고 있다. 직업 체험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체험해서 애들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프로그램을 줄였더니, 여전히 참여율이 낮다. 의미가 있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참여자 2)

협회에서 이렇게 하여도 아이들은 호응이 별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당장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A참여자 1)

아동들이 시설에 생활할때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퇴소 후에는 그 유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설에 있을 때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한 프로그램이었으나 퇴소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요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C참여자 3)

자립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지겹고 하기 싫었지만 퇴소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C참여자 2)

2.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퇴소한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생활 체험은 천안과 금산에서 원룸을 임대하여 체험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체험은 본인이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퇴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의 집에서 5박 6일 정도 생활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배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자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자립 시 어려운 점과 극복 과정, 자립에 도움이 되었던 것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퇴소 아동들이 시설과 소원해 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설에서 자립은 자신의 가정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남의 13개 시설에서 아동을 모아서 1차, 2차 독립 생활을 연습시키고 있다.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임대해서 스스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여자 1)

그리고 퇴소를 위해 퇴소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사회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얻어서 2박3일 동안 하고 나면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참여자 1)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1,2단계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3단계는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천안의 쌍룡동에 원룸을 얻어서 3박4일 동안 혼자 생활하도록 한다. 혼자 시장도 보고 밥도 해먹으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자 2)

3.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시설에서 프로그램에도 아동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에도 지속성을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기업에 어렵게 부탁하여 취업을 성공해 봐도 얼마 못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 취업 부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해서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있어서 사장님들한테 취업 부탁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렵게 취업 부탁하여 직장에 가게 해 놓으면 며칠 다니다가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그만두니 미안해서 부탁할 수 가 없다. (A참여자 1)

퇴소 후를 위해 많은 직업 체험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만 두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 ○○○대학과 함께 바우처를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못하고 있다. 직업 체험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체험해서 애들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프로그램을 줄였더니, 여전히 참여율이 낮다. 의미가 있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참여자 2)

시설 아동들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장원, 식당, 카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소)과 업무 협약을 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직업을 체험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이런 데서 체험을 하면 일정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임상심리사 채용 비용 합리적 사용

도내 대학의 협조를 받아 아동들의 심리 검사를 한 결과 정상군이 17%이고 나머지는 관심군 37% 그리고 취약군 46%일 정도로 심리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도의 지원을 받아 충남 시설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심리검사를 한적 있다. 이 중 정상군 17%, 관심군 37%, 취약군 46%였다. 관심군에서 정상군으로 갈 수 있다. 취약군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답답한 아이들이다. 취약군 아이 중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참여자 3)

타시도 보다 앞서서 충남에서는 모든 아동 거주시설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13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은 아동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시설이 근린 지역과 떨어진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3개 시설의 아동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임상심리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도내 13개 시설 중 10개설만 임상심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 임상심리사가 시설로 오지를 않는다. 시설이 싫을 수도 있지만, 시설이 대개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A참여자 3)

임상심리사가 없는 시설의 아동들은 도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상심리사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치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치료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5.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설장들의 인터뷰 분석을 보면, 2016년까지 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이후 폐지되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연가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예전처럼 부활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단순 참가 보다는 보다 응용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아쉽다. 아동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6000만원 정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아동이 중복해서 가는 것은 도에서 싫어한다. 작년에 갔던 아이가 또 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참여자 2)

본 연구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도나 시설의 입장에서 기획하지 말고, 시설 아동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이 인터넷, 전문가, 선배, 도서 등의 도움을 받아 스케줄을 잡고, 견학지를 접촉하고, 여행사를 선택하는 등 일련이 과정을 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6.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해 왔다. 참여를 잘 안했다.

협회에서 이렇게 하여도 아이들은 호응이 별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당장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A참여자 1)

퇴소 이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던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다.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한 프로그램이었으나 퇴소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요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C참여자 3)

자립프로그램을 할때에는 지겹고 하기 싫었지만 퇴소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C참여자 2)

따라서 퇴소한 아동이 시설의 프로그램에 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퇴소 아동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퇴소 아동이 재교육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다면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아동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아동 또한 자립을 위해 무언가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때 ERP 2급과 한글 엑셀, 파워 포인트 자격증을 취득하다. 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였다. (C참여자 2)

별도로 운전면허 1종 자격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운전면허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은 운전면허 자격증은 필수아닌가(C참여자 2)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실제 취업은 전공과 상관없는 쪽에 취업을 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C참여자 1)

현재 제과 · 제빵 기능사, 케이커디자이너, 조경기능사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C참여자 4)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와인주니어소물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이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취득했다. 이걸 따기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하다. (C참여자 5)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의 지원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퇴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기관,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립이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다는 개념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청소년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청소년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강현아 외, 2009; 배주미 외, 2011: 71)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해 왔다.

미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위탁 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학교-직업사회 기회이행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퇴소 아동 지원책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부터 사회투자의 일원으로 빈곤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추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산하 및 유관기관에 저소득취약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사업, 세이브더칠드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퇴소 아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은 주거지원,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대학입학금 150만원에서 실비지원까지 17시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주거, 교육, 진로, 취업,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원발굴, 연계와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설치, 전담요원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7개 시도 중 9개소에만 설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개별 시도의 보호 종료 등 요보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황별 실태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진학, 취업 및 창업 당사자별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퇴소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하지 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시설보호 아동이 퇴소한 이후의 삶을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시설퇴소 아동 현황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의 내재적 갈등과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욕구에 기반한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퇴소 아동 자립과 관련한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즉,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4명, 시설입소아동 5명, 시설퇴소아동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자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시설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은 시설에서 10년 이상 시설에 근무하거나 30년 가까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으며, 이후 보강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시설입소아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고 있으며 2-3년 후 퇴소 가능성 있는 고등학생 이다. 시설 퇴소 아동의 참여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퇴소하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퇴소 아동이다. 이들은 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였으며, 스스로 자립과 사회생활을 경험하여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입소 아동과 퇴소 아동의 인터뷰는 서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입소 아동과 퇴소 아동을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인터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실무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서면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아동복지시설은 전문적인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불충분한 가정의 양육 환경을 대신하고 보호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인간존중, 인권보장,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전문가의 보호, 개별화한 보호,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 보호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서 시설 아동은 이러한 권리에 기반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16년도 기준으로 10,967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0개소, 공동생활가정 510개소, 그리고 가정위탁가정수 10,197가정, 자립지원시설 12개소이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아동양육시설 5,605명, 공동생활가정 1,514명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230명으로 전체 7,119명이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전체 3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5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0개소이다. 시·군 중 천안이 12개소로 가장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은 아동복지시설이 없다.

2015년 기준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현황을 보면 입소아동 184명이며 퇴소아동은 166명이다. 입소이유는 학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빈곤실직 29명, 유기 18명, 가정해체 16명 순이다. 퇴소는 원가정복귀 65명, 취업자립 62명, 타시설로 전원 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퇴소한 아동들의 취업상태를 보면 2017년 현재 퇴소아동의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이며 취업분야는 서비스직 7명, 기능직 5명, 단순노무직, 전문직 각 3명, 판매직 2명, 농어업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나 그나마 정규직으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에 설치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아동생활 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된다. 아동자립지원관련 사항은 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간식비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지원 등이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남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6천만원이다. 주요사업은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그리고 자립역량강화교육이다.

연구 방법에서 밝혔듯이 세 집단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시설장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입소 전 상황에 대한 것이다.

입소 사유를 보면, 아동학대와 가정문제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였다. 이들은 무기력하고 무계획적이며 학습의욕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문제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당수는 ADHD, 분노조절장애, 학습능력장애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퇴소 전 생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후원금이나 자립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액수에 대한 부담과 소비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많은 액수를 일시에 지원하는 것 보다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있었다. 시설에 있을 때, 지역 사회의 기업에 아동을 취업시켜도 얼마 안가 그만두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취업을 부탁하기 어려운 처지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아동들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었다.

주로 요리관련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IT관련 자격증 등이다. 시설에서 자립 지원프로그램으로 원룸에서 살아보는 것을 하지만, 금산보다는 천안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퇴소 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퇴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취업을 하는데, 취업은 주로 생산직에 많이 하였다. 그리고 시설과는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이 시설의 입장에서서는 매우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퇴소 후 5년간 아동을 돌봐야 하는 시설의 입장에서서는 연락처를 변경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퇴소 아동들은 퇴소 후에 외로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버거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고 험한 세상에서 돈 사기, 결혼 사기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상태 또한 불안정하여 이사를 자주 다닌다고 하였고, 높은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퇴소 아동이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시설장들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입소아동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거주시 어려운 점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었고 후원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사회적인 낙인감이었다.

둘째,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은 학교생활에서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학습 의욕도 약하였다.

셋째,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은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지급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아동도 있었다.

넷째, 친구관계는 원만했지만,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자립에 대하여 자립은 스스로 생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지만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립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필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섯째, 시설에서 운영한 다양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자립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일곱째, 고등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장래를 위해 간호조무사, 캐드, 측량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눈을 먼저 돌리는 것 같다.

여덟째,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아동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교육은 금전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마 선배들이 금전 관리를 잘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지 않았나 싶다. 그 다음은 취업교육, 주택 지원 등이었다.

퇴소아동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LH전세 주택지원 제도를 통하여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때문에 퇴소 후 정착지원금이 속히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취업이나 대학 진학 수 퇴소 상황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회사 적응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현재 소득 수준은 130여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수준이다. 그리고 퇴소후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넷째, 현재는 시설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설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는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친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의 매우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일곱째, 퇴소 후 어려운 점은 이제 시설을 나가서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시설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회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자립에 대하여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현실적인 응답을 하였다. 퇴소 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매우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홉째,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은 금전 관리,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원금, 후원금 등 갑자기 큰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고객을 응대하는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혼자서 세탁, 식사, 청소 등 집안 살림 하는 것도 힘들게 느꼈다.

열 번째,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 등 정보망을 이용하였고, 시설의 선생님, 전 직장에서 안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활용하였다.

열한 번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은 시설의 선생님과 연락하여 해결방법을 찾거나 남자 친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축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였다.

열두 번째, 퇴소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열세 번째,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

열네 번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준비, 정보 획득을 하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지원 방안, 경제적 지원 방안 그리고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이다.

사회적 지원 방안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원가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후원 가능한 원가족 찾기 및 연계, 교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지와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기는 하나 원가족이 가지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시설퇴소 아동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현실감 있게 자신도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같은 시설 출신 선배나 지역 출신 선배를 멘토로 연결하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퇴소아동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쉬운 용어와 만화로 만들어 퇴소 아동에게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경제적 지원 방안은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으로 금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절실히 깨닫는 것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경제관념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을 사후에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 후견인 제도를 두어서 금융관리를 잘 하게 도와야 한다. 금전 관리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약 50만원 수준) 지출할 경우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금융 자문인을 퇴소 전 연결하여 정보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고, 이후 50만원이상 지출 시 사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듣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셋째, 빈곤 이론에 근거해서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더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하여 채용 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착 지원금 제공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정착지원금의 지원을 퇴소 전 지급하여 퇴소 즉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 및 신속처리 강화가 필요하다.

퇴소 후에 행정처리가 되어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는 7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시설 아동의 특성상 무기력과 무계획성이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현금 인센티브, 정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립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먼저 퇴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의 집에서 5박 6일 정도 생활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배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자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자립 시 어려운 점과 극복 과정, 자립에 도움이 되었던 것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퇴소 아동들이 시설과 소원해 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실시해봤으면 한다. 시설 아동들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장원, 식당, 카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소)과 업무 협약을 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직업을 체험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이런 데서 체험을 하면 일정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상심리사 채용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타시도 보다 앞서서 충남에서는 모든 아동 거주시설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13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은 아동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시설이 근린 지역과 떨어진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3개 시설의 아동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시설의 아동들은 도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상심리사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치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치료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장들의 인터뷰 분석을 보면, 2016년까지 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이후 폐지되었다. 이제는 시설 아동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이 인터넷, 전문가, 선배, 도서 등의 도움을 받아 스케줄을 잡고, 견학지를 접촉하고, 여행사를 선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여섯째, 퇴소 아동의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이다. 소 아동들은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해 왔다. 참여를 잘 안했다. 퇴소 이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퇴소한 아동이 시설의 프로그램에 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퇴소 아동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퇴소 아동이 재교육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다면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곱째,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의 지원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퇴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기관,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충남지역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기본적으로 18세에 이르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이후 퇴소이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와 보호종료된 퇴소아동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섬세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이다. 즉, 아동학대나 가정문제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 그리고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시설이 보호아동의 종착지가 아니며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부적절한 환경은 이후 발달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내 아동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 지원 활성화 측면에서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 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이다.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의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등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인권보장의 원리에 기초한 아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지도와 치료, 재활, 훈련 등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운영의 패러다임이 개별 아동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보호받는 아동이 시설병이라고 하는 낙인감과 집단 성장, 교육, 보호 시스템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이 중요하며, 이의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퇴소아동자립지원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아·신혜령·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30권, pp. 41-67
- 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6.1.25. 의결(의안번호 제2016-136호)
- 김연명 외(2007), 아동발달계좌(CDA)제도 및 사업확대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
- 김영아(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203-212
- 김예성·이경상(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42), 2015.4, pp.7-32
- 김태성·손병돈(2016), 『빈곤론』, 형지사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제4권, pp. 85-112
- 배주미·김영화·김범구·정익중(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22(3), 2011.8, pp.69-96
- 변숙영(2013), 시설 아동의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 소년보호연구(22), 2013. 6, pp.259-283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1),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복지사업 지원계획
- _____ (2016),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2017)
- 신혜령·박은미·강현아·이현주·한규제·김경희(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유영림·양영미·박미현(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제19권제3호, pp.509-550
- 이경상 외(2008),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VII: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경상(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2011.10 pp.341-362
- 이두호 외(1991), 『빈곤론』, 한림과학 총서
- 이용환(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15), 2003.6, pp.115-136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2017)
- 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57), 2017.3 pp.9-42
- 정문진·김수정(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6; 42(1), pp.177-207
- 정선욱(2010),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233-252
- 정익중(2007),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프로그램과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13권, pp. 35-52
- 조규필·정경은(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23(3), 2016. 3, pp.267-292
- 진선미·이주연·주보라(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2016 자립지원포럼 보호종결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12. pp.3-53
- 최용환(2016), 보호종결 이후 지원기관별 자립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2016 자립지원포럼 보호종결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12. pp.57-75

- 충청남도(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충남아동복지협회(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_____ (2017),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7),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성과 및 추진계획안
- 황정하·박수지(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24(9), 2017. 9, pp.119-143
- Brooks-Gunn & Duncan,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Vol.7 No2. pp.55-71
- Brooks-Gunn, J., Klebanov, P.K., and Liaw, F.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95) 17,1/2:251-76.
- Cook, R. J.(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 Malluccio, A., Krieger, R. & Pine, B. A.(1990). Assessing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ccio, R. Kreiger, &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pp. 72-89).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 Paddock, G.(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Vol. 79 No. 2, pp. 159-176.
- RAND, RAND Study Say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Save Money and Benefit Children, Families and Society, 2006 related resources from Karoly, L.A, Kilburn, M.R et al., 2005,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Proven Results, Future Promise, RAND
- Sherraden, 1991, Assets and the poor, Armonk, NY:M.E.Sharpe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략연구 2017-49 · 충남지역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 연구

글쓴이 · 이재완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8년 3월 31일 / 발행 · 2018년 3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9(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43-5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